



The Church of Christ, Vol. 48

그리스도의 교회

48 그리스도인의 순종



그리스도의교회선교회
CHURCH OF CHRST MISSION

그리스도의 교회 (Online)

제48권

The Church of Christ, Vol. 48

퍼낸 날
2021년 7월 16일

퍼낸 곳
(재) 그리스도의교회선교회

주소
서울시 강서구 까치산로28길 57-3
(화곡동)

전화
02) 2607-0645

팩스
02) 2696-1560

인터넷
thechurch.kr / christ.or.kr

이메일
administrator@christ.or.kr

eISSN 2734-1577

Printed in Korea

본서에 사용한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소유로 허락을 받고 사용하였습니다.

필요에 따라 새번역, 공동번역, 한글 킹제임스흠정역 등을 함께 사용하며 원문의 뜻을 살리되, 필요에 따라 반점과 온점 등의 부호를 삽입하면서 꺾쇠 안에 설명을 넣었습니다.

그리스도의교회선교회 출판 사역을 기도와 후원으로 지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료 제공: J. C. Choate Publications; World Evangelism; World Video Bible School

후원: 강남그리스도의교회(서울), 변영로그리스도의교회, 한인그리스도의교회(미국 LA); 김명수, 김무근, 김충기, 이창완, 임현자.

복음으로 부르심 / 3

- 청사진 확인 / 4
복종하는 마음가짐
- 성경 도표 / 8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
- 그리스도교의 역설 / 9
죽어 장사되지만 다시 살아남
- 구약의 교훈 / 15
신명기를 통해 확인하는 순종의 원칙
- 함께 찾는 답 / 23
순종이란 무엇인가? / 24
하나님이 보시는 순종의 원칙은? / 37
무악기 찬송은 순종해야 하는 명령일까? / 55
- 삶을 바꾸는 성경공부 / 68
제3장 확실한 기초 위에 세우는 삶
- 전도자 칼럼 / 72
복종하며 순종하라
- 새 노래 / 75
순종이 제사보다

불순종의 결과 / 34

견해와 교리: 하나의 잔 / 40

기준 잡기: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명령 / 52

도표 메모: 신약에서 만나는 10가지 명령 / 54

자주 묻는 질문: 신약성경 속 악기 / 60

확인하며 읽기: 헬리어 프살로(BDAG의 경우) / 62

오늘날의 순종: 구약을 따를 것인가? / 64

체크 포인트: 은혜의 범위 / 74

연재 및 휴재 안내 / 67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6-101-356564
예금주: (재)그리스도의교회선교회
추가문의: (02) 2607-0645

요한복음 14:18-24(문장부호 첨가)

- 18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 19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 20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 21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 22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 2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 24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복종하는 마음가짐



그리스도인의 복종은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는 것보다는 ‘그가 어떤 사람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은 행동을 많이 하지만 속마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거리가 먼 경우도 있다(마태복음 5:21-48). 우리는 다양한 책임을 안고 살아가며, 책임 맡은 모든 분야에서 ‘복종하는 마음가짐’을 지녀야 한다.

육신의 가족 관계를 생각해 보자. 만약 우리가 ‘우리 식구 중에 아버지를 제일 좋아하니까’ 아버지께 순종한다고 하면, 그리고 어머니는 아버지만큼 좋아하지 않으니 순종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다. 만약 부모님 중 한 쪽에 대해서만 순종한다면 그것은 순종하는 마음가짐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종하겠다고 선택한 대상’에게만 복종하는 것이어서, 실제로는 자기 자신에게 복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셨다(출애굽기 20:12).

우리에게는 다양한 책임이 주어져 있고, 각각의 책임과 관련하여 복종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가족 안에서, 정부에 대해,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공동체에 대해, 고용주에 대해, 피고용인에 대해 우리는 책임을 지고 있고, 복종하는 태도로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책임이 있는 곳에는 그에 따른 복종이 요구된다. 우리가 이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지구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유지할 책임이 주어진다. 그 책임은 하나님을 향한 책임이기도 하고, 타인을 향한 책임이기도 하며, 나 자신을 향한 책임이기도 하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복종하는 성품을 지니라고 하신다. 그러한 성품을 지닐 때 우리는 삶의 모든 측면에서 주어지는 모든 책임 앞에 복종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리는 습관이 밴 사람이

‘착한 척’ 하지 않는 경우, 즉 그가 위선된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그 사람이 있는 곳이 방이든, 집 안의 다른 어디이든, 자기 차 안이든, 책상 앞이든, 부엌이든, 작업실이든, 이 세상 그 어느 곳이든, 쓰레기를 버리는 습관이 있는 사람 주변은 늘 지저분할 것이다. 그와 반대로 그 사람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가 어디에 있든 휴지를 마구 버리거나 음료수 캔을 아무 곳이나 버리는 모습을 보이는 적이 없을 것이다.

복종하려는 마음가짐을 지닌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그 사람은 살면서 지니는 모든 책임 앞에 복종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대해, 가족에 대해, 친구에 대해, 고용주에 대해, 피고용인에 대해, 공동체에 대해,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법에 대해, 법적·윤리적·도덕적·사회적·영적 및 그 외 모든 면에서 책임을 지고 이행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 복종하려는 마음가짐을 지닌 사람은 지구 위에 하나의 피조물로 사는 동안 자기의 책임과 관련된 모든 면에서 복종할 것이다.

삶을 살다 보면 여러 상황에 처하게 된다. 복종의 문제는 각각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복종은 삶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있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만약 이러한 삶의 원칙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필자는 다음과 같이 묻고 싶다. “만약 복종이 태도의 문제라는 필자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인가?”

우리가 지닌 모든 생각, 그리고 그러한 생각에서 비롯된 모든 행동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 모습일 뿐이다. 우리 자신이 과거에 내린 모든 판단이 지금 우리가 지닌 성품을 만들었다. 우리가 복종하려 하는 모습이든 그렇지 않든,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이다. 좋든 싫든 그것이 현재의 우리이다. 스스로의 태도를 바꾸어야 되겠다고 결심하기 전까지,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갖추게 된 모습을 유지할 것이고 스스로 결정한 모습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태도와 관련하여 다행스러운 것 한 가지는, 우리 스스로가 어떤 결심을 하느냐에 따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의 현재 모습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지금부터 모든 면에서 복종하겠다

는 결심을 할 수도 있고, 모든 면에서 불순종하겠다는 결심을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내가 결정한 것이다.

다음과 같은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설계하고 지으시면서 책임 맡은 모든 분야에서 선을 행하고 복종하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 그러한 설계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최선의 결과를 만들 수 있고 설계대로 효율적인 삶을 살게 된다. 우리 삶의 어떤 부분에서든 하나님의 설계를 잘못 사용하면 전체 설계에 해를 끼치게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 존재의 모든 측면이 해를 입게 된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우리를 설계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설명서도 주셨다는 사실이다. 성경에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설계된 대로 최선의 결과를 얻고 최고의 상태로 작동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필자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 칼을 구입하고 나서 사용설명서를 읽지 않았다.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은 칼끝이 부러졌다고 불평했다(설명서를 읽었더라면 그 칼이 지렛대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또 한 사람, 필자가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내던 분은 자동차 사용설명서를 전혀 읽지 않았다. 30만 킬로미터 넘게 운행하면서도 그분은 오일을 한 번도 교체하지 않았다. 그분이 타던 자동차가 몇 킬로미터까지 달리고 나서 작동을 멈추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비 안내서에 적힌 지침에 따랐더라면 그 차를 얼마나 더 오래 쓸 수 있었을지 생각해 보라.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안내서에 대해 생각해 보라. ‘성경’이라는 이름의 인생 지침서를 읽기만 하면 우리들 각자가 삶의 여정에서 매 순간을 얼마나 더 기쁜 마음으로 사용할 수 있겠는지 생각해 보라.

생각해 보라! 훗날 언젠가, ‘나도 성경을 읽었어야 하는데...’ 하고 후회하는 때가 올 수 있다(그러한 후회가 여러 번 밀려올 가능성이 더 크다). 성경을 읽고 싶어 하고 실제로 읽는 것, 그 선택은 우리들 각자의 몫이다. 그렇다, 선택은 우리가 한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

글쓴이: 파수리
Parsley, Malcolm. “Obedience.”

성경 원어산책

히파쿠오/후파쿠오 ὑπακούω ‘듣다, ‘복종하다’, ‘순종하다’

(스트롱 헬라어 번호 5219)

1. 성경을 기록할 때 사용된 용어는 우리말에 비해 의미의 폭이 넓은 경우가 많다. 신약성경이 기록된 헬라어(=코이네 그리스어)에서는 히브리어에 담겨 있던 느낌까지 그대로 살리면서 복종과 순종의 ‘의미’를 알려준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다. 구약성경에서 모세가 하는 말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으라’고 말하는 것이, 듣고 따라야 할 계명을 분명히 전달하기 위한 절차임을 알 수 있다(신명기 6:4; 27:9). ‘청종하다’라는 말에는 ‘듣고 따름’의 의미가 잘 담겨있다.

이 땅까지 내려와 사역하신 예수님은 뛰어난 사람 그 이상의 존재이시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육신을 입고 계실 때에도 예수께서 지니고 계신 권세가 얼마나 컸는지 분명히 볼 수 있다.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께 순종했고(마태복음 8:27; 누가복음 8:25), 귀신들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마가복음 1:27).

신약시대에는 예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한다. 그러한 자, 즉 순종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漲水)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마태복음 7:24-27).

2. ‘순종하다’에 해당하는 다른 헬라어로 히포타스/후포따소(ὑποτάσσω)가 있다. 여기서는 자발적인 복종이 강조된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께서는 한 가정의 자녀로 성장하면서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셨다(누가복음 2:51). 그리스도인은 집권자에게 주 안에서 복종해야 한다(디도서 3:1).

3. ‘순종하다’라는 의미의 헬라어를 하나 더 소개하자면, 페이다르케오(πειθαρχέω)가 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는 표현에 사용된 단어이다.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통해 주어진 복음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

에베소서 2:8-9; 야고보서 1:17

사람이 스스로 공급하거나
행할 수 있는 것을

사람이 스스로 공급하거나
행해야 하는 것을

← 서로 모순되지 않음 →

공기 = 하나님의 선물(행 17:25)

숨 쉴 = 육체적 생명 유지

물 = 하나님의 선물(창 1:6-9)

마심 = 육체적 생명 유지(행 23:12)

식량 = 하나님의 선물(마 6:11, 26)

먹음 = 육체적 생명 유지(살후 3:10)

화석연료 = 하나님의 선물(약 1:17)

케내고 태워 열을 얻음 = 육체적 생명 유지

그리스도 = 하나님의 선물(딤후 2:11;

믿음 = 영원한 생명(요 8:24;

엡 2:7; 롬 5:15; 요 3:16)

행 8:37; 16:31; 히 11:6)

복음 = 하나님의 선물

신종함 = 영원한 생명(막 16:16;

(롬 1:16)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람 쪽에서 받은

구원 = 하나님의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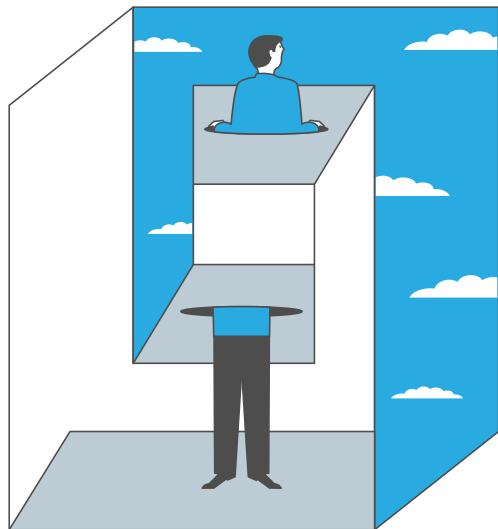
받아들임 = 영원한 생명(막 16:16;

(요 3:16; 롬 5:8-11)

(참조: 계 22:17)

베푸 3:9; 히 5:9; 계 22:14)

죽어 장사되지만 다시 살아남



사전에서 ‘역설’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겉보기에는 모순되는 것 같으나 그 속에 중요한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주장이나 이론”이라고 뜻풀이가 되어 있다(참조: 네이버 사전). 역설은 성경 전반에 걸쳐 자주 사용되며, 특정 사실에 대해 더 깊이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번에 다룰 역설은, 그리스도인이 죽어 장사되지만 다시 살아난다는 점이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예를 들어보자. 필자의 가족 가운데 이미 세상을 떠난 분을 한 사람 떠올려본다. 필자가 자주 그분의 무덤을 찾아가더라도, 얼마나 자주 방문하느냐에 상관없이 그분의 시신이 여전히 땅 밑에 묻혀 있음을 필자는 안다. 세상을 떠난 분의 몸은 아직 부활하지 않고 무덤 속에 있다. 그렇다면 장사되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성경에서는 이 문제를 ‘영적인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알려준다.

죄인이 살아가는 모습

우리 가운데 다수는 매우 평범한 삶을 산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일을 시작하고, 점심을 먹고, 조금 더 일하다 퇴근하여 잠자리에 든다. 똑같은 일상을 매일 반복하는 가운데 우리는 자기 삶을 얼마나 점검하며 사는 것일까?

우리는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는가? 크고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 따로 시간을 내어 생각해 보고 있는가? 크고 중요한 질문들, 예를 들어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와 같은 큰 질문이 여럿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 생각조차 해 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살면서 던지는 일반적인 질문은, “나는 커서 무슨 일을 할까?”, “나는 나중에 어디서 살까?” 등과 같은 것들이다. 이러한 질문들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앞서 필자가 언급한 ‘커다란 질문들’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하고 큰 질문은, “지금 인류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고 느낀다. 그런데 그 문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보기 어렵다. 성경에서는 세상이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에 관한 답을 알려준다. 인류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다. 죄인은 육체적으로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다(이사야 59:1-2; 에베소서 2:1-10).

성경에서는 죄인의 삶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죄는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것이다(요한1서 3:4). 죄는 하나님의 성품을 거역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도달해야 할 목적지를 여러 개의 ‘과녁’처럼 정해놓으셨는데, 그 과녁을 벗어날 때마다 우리는 죄를 짓는다.

죄인의 삶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더러운 말과 더러운 생각’이다. 성경에서는 죄인들의 언어가 어떤 것인지 설명하면서 경계의 메시지를 전한다(잠언 1:10-15; 에베소서 4:29).

죄가 되는 말은 마음에서 비롯된다(잠언 23:7; 예레미야 17:9).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불경한 발언을 수없이 접한다. 방송에서, 영화에서, 거리에서, 그리고 슬프게도, 우리 자신이 속한 가정에서도 그러한 언어가 사용된다.

죄인의 삶에서 두드러지게 볼 수 있는 또 다른 요소는 ‘어둠에 속한 행동’이다.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는 육체적 만족을 얻기 위한 일들과 관련된 소식을 매일 듣는다(갈라디아서 5:19-21; 로마서 1:18-32).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빛이시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의 ‘어둠에 속한 행동’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요한복음 1:4; 3:19-21; 8:12; 11:9-10).

죄인의 삶에서 두드러지는 것 또 한 가지는 ‘무너진 관계’이다. 우리 앞에 놓인 세상은 이혼한 부부와 깨어진 가정으로 가득하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성경은 완벽한 지침서가 된다. 우리는 성경에서 도움을 받아, 하나님ی 기대하시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알게 된다(에베소서 5:22-33; 6:1-4).

죄인이 잃어버리는 것들

앞에서 우리는 죄인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묘사되는지 살펴보았는데, 죄인이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그 종착점이 어디일까? 죄인의 비도덕적인 행동에 뒤따르는 결과는 어떤 것일까? 죄가 한 사람을 압도적으로 지배하도록 내버려 둘 때, 그 죄인이 잃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로마서 6:12-14)?

죄인이 첫 번째로 잃어버리는 것은 창조주와의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관계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사랑하고 따를 때 만족스럽고 충족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내면에 장치를 마련해 놓으셨다(전도서 12:13-14). 사탄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려 애쓴다. 사탄이 보여주는 길은 우리 자신이 영광을 얻고자 애쓰는 방향으로 이끈다. 그러한 길을 따르다 보면 결국 우리는 만족스럽지 않은 삶을 살게 된다(고린도후서 5:15; 마태복음 10:37-39; 16:24-25; 요한1서 2:15-17).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보다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다(요한복음 10:10).

죄인이 두 번째로 잃어버리는 것은 자신의 영원한 몸과 영혼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안에 짐승들과 다른 독특함이 자리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靈)을 주셨고, 그 영은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계속 살아 있다(스가랴 12:1, 7).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날 예수께서는 그때까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은 모든 사람을 무덤에서 일으켜 그 사람의 영과 다시 결합하게 하실 것이다(히브리서 9:27; 요한복음 5:28-29). 악하게 살다 죽은 사람도 새로운 몸을 갖게 되면서 부활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옥으로 보내실 것이다(마태복음 10:28-29). 그러한 이유에서 성경은 이를 “둘째 사망”이라 부른다(계시록 21:8). 지옥에 던져지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는 영원한 분리가 일어난다(마태복음 16:26-27; 데살로니가후서 1:7-9).

편집자 주

*사람이 지니게 될 ‘영원한 몸’에 대한 설명이 ‘영’에 대한 설명 뒤에 이어진다. 현재 우리가 지니고 있는 몸은 지극히 유한하지만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에는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을 갖게 될 것이다(고전 15:50-54).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앞서 우리는 죄인들의 삶을 성경에서 어떤 모습으로 묘사하는지 살펴보았다. 이 글을 읽는 독자의 삶은 어떠한가? 성경에서 묘사한 죄인의 삶이 바로 당신 삶의 모습인가? 만약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계속 그렇게 살아갈 때 뒤따르게 될 결과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지금 당신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 그리고 당신의 육체가 숨을 멈출 때 잃게 될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고 있는가?

당신을 향해 사랑을 품고 계신 이가 계시다. 당신이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을지라도 그는 당신을 사랑하신다. 당신을 향해 사랑을 품고 계신 이가 계시다. 당신이 그를 막대기로 때릴지라도 그는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지은 죄들을 당신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다(요한복음 3:16-17; 에베소서 2:1-10; 로마서 5:6-8).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 무엇을

기꺼이 하실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은 죄들로부터 당신을 구원해주실 수 있다. 지금 당신은 건강한 몸으로 여기저기를 다닐지 모른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계속 죄를 범한다면, 당신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다. 당신은 하나님과 분리되고 싶은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분리된 채 있기를 바라는가? 죄인이 살면서 잃어버리는 것들이 무엇인지 당신은 앞에서 이미 보았다.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디모데전서 2:4).

사랑으로 순종해야 하는 죄인

하나님께서서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속량 계획을 창세 전에 미리 마련하셨다. 그 계획은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가 지은 죄들을 대신하여 죽게 하시는 것이었다(베드로전서 1:20). 죄인이 된 각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바에 따라 순종하며 따라야 한다. 그렇게 해야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 죄인의 구원은 믿음(요한복음 8:24), 회개(사도행전 2:38), 믿음의 고백(로마서 10:9-10), 침례받고 죄를 용서받음(사도행전 22:16) 등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복음의 기초는 예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데 있다(고린도전서 15:1-4).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죽어 장사되던 과정을 담은 기록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기 바란다(마태복음 27:57-66; 마가복음 15:42-47; 누가복음 23:50-56; 요한복음 19:38-42).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동굴무덤의 돌이 옮겨지고 나서 시신이 사람들의 눈앞에서 사라지게 되었다는 점에 특별히 주목하자. 우리에게서도 과거에 지니고 있던 모습이 완전히 사라져야 하지 않을까? 죄에 빠져 살던 “옛 사람”이 영원히 장사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 그리스도인의 경우, “옛 사람”은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가 누워 있던 곳에, 침례받은 물속이 무덤이 되어 그 안에, 그대로 안치된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물속에서 침례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됨으로써 과거에 지은 죄들을 모두 깨끗이 씻기 바라신다.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일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믿음이 통로가 되어 이루어진다(골로새서 2:12; 사도행전 8:36-39; 22:16; 계시록 1:5). 여기서 우리는, 침례를 통해 죄에 물든 “옛 사람”이 영적으로 장사되는 한편 죽은 자 가운데서 “새 사람”이 영적으로 일어나는 것임을 알 수 있다(요한복음 5:25-26; 고린도후서 5:17)!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는 내용에 주목하기 바란다(마태복음 28:16; 마가복음 16:1-8; 누가복음 24:1-9; 요한복음 20:11-18).

첫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부활 전과 분명히 다르지만 같았다(또 하나의 역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드러나는 모습이 분명히 달라야 하지 않을까? 물론 침례받고 물 밖으로 나와도 우리의 겉모습은 예전과 같은 사람으로 보인다. 하지만 물 밖으로 나온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다른 마음가짐을 지니고 산다(골로새서 3:1-4).

둘째, 주 예수의 부활은, 부활하고 나서 다시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 첫 번째 경우이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추수 때 이루어질 부활의 “첫 열매” 이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마지막 날에 무덤에서 새로운 몸을 입으며 다시 살아날 것이고 다시 죽는 일이 없을 것이다(요한복음 5:28-29; 고린도전서 15:20-24; 데살로니가전서 4:13-18). 끝없이 이어지는 세월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글쓴이: 셰인 피셔

Fisher, Shane. “Paradoxes of Christianity: Buried, Yet Risen,”
The Voice of Truth International. Vol. 104, pp. 10-13.

「신명기」를 통해 확인하는 순종의 원칙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加減)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명령을 지키라”(신명기 4:1-2. 문장부호 첨가).

하나님은 사람에게 대해 변함없는 목적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신 역사는, 사람이 따라야 할 내용을 알려주신 역사이자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할 수 있게 하고자 애쓰신 역사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순종하는 길은 복 받는 길이다. 다윗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여호와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義)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시편 103:17-18).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한 모든 원칙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순종의 원칙’이다.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생명을 찾을 수 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충족된 삶을 찾으려 하는 것은 물로 불을 피우려 애쓰는 것과도 같다. 불순종은 충족된 삶을 가져오지 못한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왜 나는 삶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지? 하는 의문을 품고 이상히 여긴다.

‘순종의 원칙’은 하나님이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실 때부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세워진 원칙이다. 순종의 원칙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계속 유지되었다. 하나님은 시대를 불문하고 사람에게 순종의 원칙을 따르도록 하셨다. 순종하는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의 복이 전해지는 문이 열리지만, 불순종하면 그 문이 닫히고 영적인 빈곤이

닥친다. 신명기 4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주어 말한 요지는, 하나님의 법에 깊이 주의하여 순종하라는 것이었다.

순종을 통해 이스라엘은 번영을 누렸음

구약성경 「신명기」에 기록된 모세의 첫 번째 연설은 제4장에서 절정에 달한다. 신명기 앞부분에 기록된 세 개의 장에서는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신 이야기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루었다. 이스라엘이 배워야 했던 교훈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관한 것이었다.

신명기 4장 1절은 “**이스라엘아, 이제...**”라는 두 개의 단어로 시작된다. 이는 모세가 지금부터 하는 말이 앞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모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영광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와 법도, 즉 규정과 판결에 순종해야 합니다.”

신명기 4장 1절 말씀을 ‘신명기 원칙’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많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자주 반복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신명기 원칙’은 순종에 관한 것으로, 그 원칙에 따를 때에만 생명을 유지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 순종의 원칙이 거듭 나타나는 구절을 몇 개만 더 정리해 보면, 신명기 4:40; 5:32, 33; 6:1, 2, 17, 18 등이다. 신명기 4장 25-28에서는 순종의 원칙을 따르지 않을 때에 관해 말씀한다.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순종의 원칙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순순히 따름’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한편 『웹스

터 영어사전』의 ‘복종’ 항목을 보면, 복종이란 ‘명령, 금지, 알려진 법 등을 준수’하는 것이고 ‘권위 있는 대상이 요구하는 대로 수행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복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명령이 미리 전달된 상태에서 그에 이어지는 결과로 명령을 준수하는 것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복종이 아님’이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여 정리해 보면, 순종이란 권위를 지닌 주체를 인정하면서 그가 정한 법을 준수하고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모세는 자기가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에 복종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다.* 여기서 모세는 “규례”라는 말을 통해 [육적] 이스라엘이 영원히 지켜야 할 행동 규정을 언급하고 있다. 규례는 합당한 권위를 지닌 이가 명하는 것으로서, 기록된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개인과 사회의 행동 방식을 안내한다. “법도”는 ‘판결’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참조: NASB). 즉 법도는 재판을 통해 내려지는 결정들로서 앞으로의 판례로 작용한다.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은 법도에 따라 도덕적·사회적 문제에 관한 판결을 내린다. 즉 “규례와 법도”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하는 법 전체가 포함된다.

편집자 **註**

*한글판 성경에서는 ‘규례’라는 말과 ‘율례’라는 말을 함께 사용한다.

하나님의 법이 어떤 사람에게 적용될 때, 하나님이 지니신 권한이 그 사람 전체에 대해 작용한다. 여기에는 그 사람의 개인적 문제와 공적인 문제 모두가 관련된다. 하나님의 법에 담긴 권한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에게 작용한다. 그 법에 주의를 기울이고 연구하며 묵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법에 담긴 권한은 느낄 줄 아는 사람에게 작용한다. 그 법에 경의를 표하고 존중하며 사랑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법에 담긴 권한은 도덕적 능력을 지닌 사람에게 작용한다. 그 법에 동의하고 반응하며 충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법에 담긴 권한은 실천에 옮기는 힘을 지닌 사람에게 작용한다. 그 법대로 실행하고 자기를 조절하며 꾸준히 섬겨야 하기 때문이다.

듣음이 기초가 되어 순종으로 이어짐

듣음이 먼저 있어야 행함이 있을 수 있다. 특정한 법에 담긴 내용을 알아야 그 법대로 준행할 수 있다. 이스라엘이 먼저 해야 했던 일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부지런히 듣고 익히며 그 내용을 이해하는 일이었다.

‘듣음’과 ‘믿음’이 너무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에 히브리어에서는 그 두 가지 의미를 전달할 때 같은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 히브리어에서 ‘듣다’에 해당하는 동사가 지닌 성격은 의미심장하다. 상대방의 말을 피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내용에 대해 전인적반응을 보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에게는 순종의 교리와 관련하여 심리적 측면이 중요하다는 보충설명이 필요 없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그 말씀에 복종한다는 것과 같은 뜻이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말은 정보를 전달하는 단순한 강연과 같은 것이 아니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세가 전하는 명령에 순종해야 할 도덕적·영적 책임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배운 것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해야만 내면의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 배운 것을 적용하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성장이 거의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구구단을 배우려 하지 않는 아이가 수학자가 되기 어려운 것이고, 특정 언어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문자를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이 그 언어의 전문가가 되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매우 주의 깊게 들어야 했을 뿐 아니라 그 내용대로 주의 깊게 실천해야 했다. 신명기 4장 2절에서 모세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명령**”을 지키라고 이스라엘에게 강조한다.

‘순종의 원칙’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모두에서 볼 수 있다. 순종의 원칙은 직접적으로 서술되어 있기도 하고 함축되어 있기도 하다(참조: 히브리서 5:8-9). 야고보서 1:22-24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순종의 원칙이 적용됨을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

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새번역).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사람이 있다.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슬쩍 발 담그고 건너뛰기’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슬쩍 발을 담그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은 건너뛰다.” 그러한 방식의 삶은 모세 시대에도,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순종은 더하거나 빼지 않음을 의미함

순종의 원칙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지런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명령을 지키라”(신명기 4:2). 이스라엘은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법을 완전한 전체로 지켜야 했다.* 하나님의 법에서 무엇인가를 빼거나 더하면 안 되었다.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신성한 법이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람의 입법 활동에 따라 개정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중에 12장 32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주의 깊게 따라야 할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재차 강조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편집자 주

*이 글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법에 관한 내용임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는 점은 별도의 지면에서 다룬다.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하여 받은 명령 전체를 보존해야 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어떤 식으로든 변경하면 안 되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 무엇인가를 추가하거나 덜어내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언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마태복음 5:17). 바리새인들이 저지른 죄 가운데 예수께서 강하게 나무라신 것은, 그들이 가르친 교리가 사

람의 명령을 바탕으로 했고 그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심각한 잘못을 범한다는 점이였다(마태복음 15:6).

하나님의 법에서 그 어떤 것도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는 원칙은 모든 세대에 적용된다. 「잠언」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잠언 30:5-6).

신약성경 「계시록」을 통해 전달된 예언의 말씀과 관련하여,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 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계시록 22:18, 19).

하나님의 법은 완벽하고 완전하며(시편 19:7; 119:160; 디모데후서 3:16, 17; 야고보서 1:25),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급한다(베드로후서 1:3).

여호와와 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와 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시편 19:7).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야고보서 1:25).

하나님의 법은 ‘완벽’하기 때문에 더 좋게 만들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빼는 것은 완전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빛과 진리의 출처이신 하나님의 지위를 찬탈하려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가 그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말씀 전체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이다. 약속의 땅에서 누리기로 약속되어 있던 이스라엘의 생명과 번영은, 모세가

빠뜨림 없이 가르치던 규례와 법도, 즉 규정들과 판결들을 지킬 능력이 이스라엘에게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었다. 하나님의 법에 변화나 첨가가 가해지면 손상이 일어날 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삶 속에서 영속성을 지니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베드로전서 1:24-25상반).

하나님의 법 안에는 윤리적 영역에 관한 법의 총체와 본질이 단단한 바위에 새긴 글자처럼 박혀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한다.

결 론

얼 웨스트(Earle West)가 전하는 말에 의하면, 데이비드 립스콤(David Lipscomb)은 순종의 원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선(善)에 관한 판단을 할 때 인간은 무능한 재판관이다. 따라서 인간은 자기를 지으신 이가 가르쳐주신 내용에 의지해야 한다. 이는 무엇이 선한 것인지 결정하는 문제 앞에서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의지하면서 가르침과 안내를 받아야만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 점에 관해 어린아이는 극히 무능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내용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은 참되고 영속적인 선을 가져오는 삶이다. 그러한 과정을 밟는 사람에게 영원한 선이 찾아온다. …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제도나 실천 방법도 이 땅에 사는 인류에게 영원한 행복과 번영을 가져올 수 없다. 성경에서는 말씀한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잠언 14:12).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상, 즉 복을 받고 불순종할 때에 벌, 즉 저주를 받는다는 원칙은 우리 눈에 띄는 곳에 언제나 자리하고 있다. 순종의 원칙은 하나님의 법전에 페이지마다 찍힌 도장이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메시지마다 담겨 있는 가르침은, 하나님의 뜻에 따를 때 선한 결과가 생기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때 악한 결과가 빚어진다는 점이다.*

*(21쪽 하단 인용 내용 관련) 위에 인용한 글에서 립스콧은 아담의 원죄로 인해 모든 사람의 전적으로 무능력해졌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기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 아기는 죄인이 아니라 부모의 도움을 받으며 ‘판단력’을 갖추어 가야 하는 귀한 존재이다.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글 가운데 순종과 관련한 최고의 글은 솔로몬의 펜 끝에서 나왔다. 인생이 무엇인지에 관한 분석을 마무리하며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썼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전도서 12:13-14).

각각의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특별한 때와 마주해야 한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때이며, 그를 위한 판단 기준은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조건들이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행함을 의미한다.

글쓴이: 펠턴 스프라긴스

Spraggins, Felton. “Deuteronomy: The Obedience Principle (Deuteronomy 4:1, 2)”

©Copyright, 1990, 2001, 2021 by Truth for Today .
For the detailed information on the copyright by Truth for Today,
see page 23 of this issue.

그리스도인의 순종에 관하여

글쓴이: 오웬 올브리히트(Owen D. Olbricht)

순종이란 무엇인가? / 24

Obedience: What Is It?

하나님이 보시는 순종의 원칙은? / 37

Obedience: God's Parameters

무악기 찬송은 순종해야 하는 명령일까? / 55

Obedience: "Making Melody"

불순종의 결과 / 34

견해와 교리: 하나의 잔 / 40

기준 잡기: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명령 / 52

도표 메모: 신약에서 만나는 10가지 명령 / 54

자주 묻는 질문: 신약성경 속 악기 / 60

확인하며 읽기: 헬라어 프살로(BDAG) / 62

오늘날의 순종: 구약을 따를 것인가? / 64

THE ORIGINAL ENGLISH EDITION OF THIS STUDY APPEARED IN TRUTH FOR TODAY,
PUBLISHED BY TRUTH FOR TODAY WORLD MISSION SCHOOL, INC.,
2209 BENTON, SEARCY, AR 72143 USA. THIS UNOFFICIAL TRANSLATION IS DISTRIBUTED
WITH THE PERMISSION OF TRUTH FOR TODAY WORLD MISSION SCHOOL.

©Copyright, 2008, 2021, by Truth for Today
ALL RIGHTS RESERVED

순종이란 무엇인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히브리서 5:8-9)

순종은 타인의 지시에 대한 자발적 반응이다. 순종에는 (1) 명령 받은 바를 행하는 것과 (2) 명령받지 않는 바를 행하지 않는 것이 모두 포함된다. 많은 경우, 순종은 이유를 묻거나 찾지 않는다.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바를 의문 없이 받아들인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 순종의 동기가 믿음(히브리서 11:8), 소망(요한1서 3:3), 사랑(요한복음 14:15)이기를 바라신다.

우리가 받는 구원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예수께 순종하는 데 달려 있다(히브리서 5:9). 예수께서는 심판 날에 “내게서 떠나가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놀랄 것이라고 예수께서는 경고하셨다(마태복음 7:21-23). 그러한 심판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무척이나 당혹스러울 것이다. 마태복음 7장에 언급되는 사람들은 비도덕적이거나 신앙심이 없거나 주님을 섬기려는 열심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7장에서 꾸지람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적이고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그들과 관련하여 겉으로 드러난 증거만 보아도 그들이 예수님을 섬기려 노력했다는 점이 드러난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행동했다는 데 있었다. 예수님을 섬긴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섬긴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섬기려 한 것이 문제였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께서 하신 다른 말씀들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순종의 의미 | 순종의 원칙 | 순종하는 찬송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누가복음 8:21. 돌음체는 필자가 강조한 것임. 이하 같음. 참조: 마태복음 12:50).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누가복음 11:28).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요한복음 3:36).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요한복음 12:48-50).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셨고,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신 성령께서도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셨다(요한복음 16:14). 오늘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께서는 똑같은 태도를 기대하신다.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갈라디아서 1:8-9).

편집자 주

*여기서 볼 수 있듯, ‘성령하나님의 역사’를 지나치게 강조하며 높이려고 애쓰는 것은 오히려 성령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문제, 하나님과 바람직한 관계를 유지하는 문제 등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따르며 행하는가에 달려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권리를 주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고린도전서 7:19하 반 새번역).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요한1서 2:17).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식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신다. 우리 나름대로 지닌 생각, 즉 ‘나는 이것이 좋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결국은 이걸 거야’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으로 단정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께 신중히 복종하는 모습을 통해 드러나야 한다.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다.

성경에 기록된 순종의 본보기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기대하신다(출애굽기 19:5; 신명기 11:27, 28; 13:4; 27:10; 마태복음 7:21; 히브리서 5:9).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럽고 경건하게 섬기는 삶을 산 사람들과 거역하는 삶을 산 사람들의 예를 모두 보여주시고,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보여주신다. 바울은 편지에 쓰기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했다(고린도전서 10:6). 같은 편지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을 계속한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고린도전서 10:11).

그러면 이제, 구약성경에서 순종의 본보기로 기록된 몇몇 인물에 관해 생각해보자.

아 벨

성경에서는 가인 및 아벨과 관련하여 ‘불순종’이나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한 사람이 행한 일은 불순종의 증거였고, 다른 한 사람이 행한 일은 순종의 증거였다.

순종의 의미 | 순종의 원칙 | 순종하는 찬송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창세기 4:3-5상반).

히브리서에서는 아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히브리서 11:4).

아벨의 순종은 그의 행동에서 드러난다. 아벨은 자기가 키우는 가축의 첫 새끼를 제물로 준비했고, 그 동물의 기름을 포함하여 제물로 바쳤다. 아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행동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제사를 드렸다. 아벨은 하나님이 무엇을 “믿음”으로 여기시는지에 관해 잘 보여주는 본보기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명령대로 행함으로써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다.

아벨은 짐승을 제물로 드렸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인정하신 유일한 종류의 제물은 짐승뿐이었다(창세기 8:20; 22:9-13; 욥기 42:7-9; 출애굽기 10:25, 26). 나중에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곡물도 제물로 바칠 수 있다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셨다(레위기 2:1-16; 5:11-13; 6:14-23; 7:11-14).

무엇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하는지에 대해 가인과 아벨이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시는 방법밖에 없었다. 만약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물이 어떤 것인지를 아벨이 알지 못했다면 어떻게 그가 믿음으로 행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지시 사항을 아벨이 들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한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신앙의 영웅들’을 소개한다. 그 목록에는 노아(7절), 아브라함(8-9절), 모세(24-29절)를 비롯한 여러 인

물이 등장한다(참조: 2-40절).

성경에서 가인과 아벨을 대조하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순종을 기대하고 계심을 보여준다.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과 불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이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가인과 아벨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을 믿었고, 예배의 필요성을 믿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했고, 제물을 바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제물을 한 가지씩 바쳤다.

가인과 아벨은 한 가지 면에서만 달랐다.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을 바쳤지만 가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제물을 바치지 못했다.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원하셨을 뿐 아니라 그 예배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내용대로만 예배할 때 그 사람은 의로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내용을 넘어서 예배할 때 그 사람은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과 관련하여, 하나님은 가인이 바친 제물을 거절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네가 선을 행하면[NASB: 제대로 한다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앞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지니라”**(창세기 4:7). 가인은 제물 바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기에 죄를 범했다.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이유에 관하여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자기[=가인]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요한1서 3:12). 가인은 의로운 아벨이 제물을 바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치며 제대로 행하는 것을 보았지만, 그 자신은 **“악”**을 행했다.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제물을 바쳤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방식을 변화시킬 경우 죄를 범하게 된다. 우리 나름대로 예배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각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인의 잘못은 태도 면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뿐이라고 결론을 내리려 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가인이 잘못된 태도를 지녔던 것이 분명한 사실

순종의 의미 | 순종의 원칙 | 순종하는 찬송

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1)가인과 (2)가인의 제물 양쪽 모두를 받지 않으셨음에 주목해야 한다(창세기 4:5).

아벨은 숨을 거두었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 아벨은 순종하는 믿음의 본보기이다(히브리서 11:4).

노 아

노아에 관한 성경 기록에서도 ‘순종’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지만, 노아가 ‘행한’ 행동은 그가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된다. 노아가 보여준 믿음의 행동에 대해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라고 말씀한다(히브리서 11:7상반). 창세기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도 나온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창세기 6:22).

노아는 순종에 관한 뛰어난 본보기이다. 하나님이 계시해주시지 않았다면 노아는 방주 짓는 법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주셔서 방주를 지을 수 있게 하셨다. 노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정확히 알았다. 그는 자기 방식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설계도에 의지하면서 그 내용에 충실히 따랐다. 노아는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하신 재료만을 사용했다. 노아는 홍수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믿음으로 행동해야 했다. 홍수가 다가오고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했다.

“**노아가 ...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는 말씀(창세기 6:22)은, 방주를 짓는 문제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그대로 따랐음을 의미한다(창세기 6:14-16).

- 고펀르 나무를 사용할 것.
- 여러 칸을 만들 것.
- 역청을 안팎에 칠할 것.
- 길이는 300규빗으로 할 것(약 135m).
- 너비는 50규빗으로 할 것(약 22.5m).
- 높이는 30규빗으로 할 것(약 13.5m).

- 방주의 위로부터 한 규빗에 창을 낼 것.
- 방주 옆쪽에 문을 만들 것.

이것뿐이 아니었다. 노아는 아내와 아들과 며느리들, 양식, 짐승(정한 짐승과 부정 짐승을 구별하여 숫자를 맞추었음) 등을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며 방주에 태웠다. 노아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더하거나 덜함 없이 행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에 관한 기록에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나온다. 성경 기록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되어 있다(히브리서 11:8).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다. 그는 살던 곳을 떠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기 땅과 친척을 떠나 멀고 낯선 나라로 가야 함을 의미했지만 그는 하나님께 순종했다.

살던 곳을 떠난다는 것은 많은 값을 치르고 많은 것을 잃어야 하는 일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몰랐지만 왜 떠나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해서였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였고, 아브라함을 통해 지구 위 모든 가족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셨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랐다. 그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갔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좋은 본보기이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야고보서 2:21-22). 믿음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기꺼이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히브리서 11:17).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는 문제와 관련하여 믿음과 행함을 통해 다음과 같은 일들을 했다.

순종의 의미 | 순종의 원칙 | 순종하는 찬송

- 아브라함은 행동에 옮겼음(창세기 22:3).
-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데리고 갔음(창세기 22:2-3).
- 모리아 산으로 갔음(출애굽기 22:2).
-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산의 특정 장소로 갔음(창세기 22:2, 4).
- 번제에 사용할 장작을 갖고 갔음(창세기 22:2-3).
- 불씨를 갖고 갔음(창세기 22:6).
- 번제에 쓸 칼을 갖고 갔음(창세기 22:6).
- 번제에 쓸 양을 갖고 가지 않았음(창세기 22:7).
- 번제를 위한 제단을 쌓았음(창세기 22:9).
-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브라함은 제단 위에 장작을 얹어놓았고, 이삭을 묶었으며, 제단 위 장작 위에 이삭을 올려놓았음(창세기 22:9).
- 손을 들어 이삭을 죽여 제물로 바치려 했음(창세기 22:10).

[그때 여호와와 사자(使者)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불러 이삭을 죽이는 일을 중단시키고, 하나님이 준비해주신 숫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그리스도, 갈라디아서 3:16]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셨다. 아브라함이 어째서 그런 복을 받게 되는지에 관해 하나님은 여호와와 사자를 통해 그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라고 하셨다(창세기 22:18하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모두 행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구체적으로 따라야 하는 사항들이 있었고, 내포된 사항들도 있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브라함이 따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야 했다.

- 희생 제물: 이삭(창세기 22:2).
- 제물을 바칠 장소: 모리아 산(창세기 22:2).
- 제물을 바칠 사람: 아브라함(창세기 22:2).
- 제사 방법: 제물을 태워 바치는 번제. 마음에서 우리나라서 드릴 것.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위에 정리한 사항뿐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포함된 내용이 있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도 함

께 확인해야 했다.

- 이동 수단: 걸어서 갈 것인지, 나귀를 준비해야 하는지 등(창세기 22:3).
- 태울 장작(창세기 22:3).
- 희생제사에 쓸 장작에 불을 붙이기 위한 불씨(창세기 22:6).
- 희생제물을 죽일 때 쓸 칼이나 기타 도구(창세기 22:6)
- 희생제물이 될 사람의 자발적 복종[건강한 청년인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강한 힘을 지니고 있었을 것임].

아브라함은, 믿음을 지닌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본보기이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은, 그 일과 관련된 측면을 전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순종해야 한다.

여리고의 여호수아

구약시대 이스라엘 역사를 더 따라가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리신 구체적인 지시를 통해 여리고 정복 방법을 알려주셨다(여호수아 6:3-5). 군사들은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번, 6일 동안 행진해야 했다(3절). 일곱 명의 제사장이 일곱 개의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진해야 했다(4절). 일곱째 날, 성 주위를 일곱 번 돌아야 했다(4절). 일곱 번 다 돈 다음 나팔 소리가 나면 큰 함성을 질러야 했다. 그렇게 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5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했다(여호수아 6:8-20). 히브리서에서도, “**믿음으로 칠 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라고 기록되어 있다(히브리서 11:30).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고, 그 믿음이 동기가 되어 하나님께 순종했다.

라 합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도와서 여리고를 무사히 빠져나가게 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로 라합은 여리고가 멸망할 때 그녀와 그녀 가족의 목숨을 구해달라고 했다.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그들이 지시한 내용대로

순종의 의미 | 순종의 원칙 | 순종하는 찬송

순종하면 목숨을 건질 것이라고 했다(여호수아 2:17-20). 라합이 받은 지시는, 정탐꾼들을 탈출시킨 창문에 붉은 줄을 매 두고, 라합의 일가친척을 그녀의 집 안에 있게 하라는 것이었다. 라합은 그러한 계획을 누구에게도 누설하면 안 되었다.

라합은 지시받은 대로 했고,* 여리고 사람들이 모두 목숨을 잃을 때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여호수아 6:22-23).

편집자 주

*히브리서 11:31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여, 라합이 구원받은 이유가 ‘믿음’에 있음을 말씀한다. 라합이 정탐꾼들의 지시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녀의 믿음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며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한 눈먼 사람

순종의 또 한 본보기로는 요한복음 9:1에 등장하는,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를 보신 예수께서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다(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 그래서 그는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요한복음 9:7).

이 경우 순종은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따르는 것을 의미했다. 그 눈먼 사람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 그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았고, 그곳에 도착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으며, 왜 씻어야 하는지 알았다. 그는 순종했고 시력을 얻었다.

예수께서는 눈먼 사람을 실로암 못으로 보내면서 “얼굴에서 진흙을 떼어내고 씻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든가 “씻을 때 비누를 쓰지 말라”는 등의 금지 사항에 관해 지시하지 않으셨다. 또한 “실로암 못 외에 다른 어떤 못에도 가면 안 된다”라든가 “누군가 다른 사람이 네 얼굴에서 진흙을 씻어내게 하면 안 된다”와 같은 구체적인 말씀도 없으셨다.

예수께서는 눈먼 사람을 실로암 못으로 보내면서 그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만 말씀하셨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미 계시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와 다르게 행할 모든 가능성에 관해서는 말씀하실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과 관련된 문제이다. 그와 다르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 즉 하나님이 지니신 권위에 의지하지 않고 행동함을 뜻한다.

불순종의 결과

성경에서는 불순종의 예도 함께 보여준다. 불순종에는 심각한 일들이 뒤따른다. 그러한 비극적인 예 가운데 한 가지가 사울 왕의 불순종이다.

사울이 범한 죄는 두 가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첫째로, 사울은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희생제사를 자기가 드렸다. 사울은 7일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다. 그런데 선지자 사무엘의 도착이 계속 늦어지고 있었다. 사울의 군대가 흩어지지 시작하자 그는 논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조치를 취했다. 사무엘 대신 자기가 주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 것이다. 하지만 사울은 제사장이 아니므로 제사를 드릴 권한이 없었다. 사울이 희생제사를 마친 직후에 사무엘이 도착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사무엘상 13:13).

사울이 지은 첫 번째 죄는 제사장의 권한과 지위를 침해한 것이었다. 희생제물을 바치는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어야 했다(출애굽기 28:1, 4; 29:44; 30:30; 레위기 1:8, 11; 2:2). 희생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레위인들이었기 때문에 사울(벰나민의 후손)에게는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사울은 자기 행동이 옳다고 여겼다.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희생제물을 바치려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으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는 마음도 있었다. 문제는 다른 데 있었다. 사울 왕의 잘못은 그 상황에서 자기가 최선이라고 생각한 대로 행동했다는 데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했다. 사울은 옳바

른 제물을 바쳤지만, 그 제물을 바칠 자격이 그에게 없었다. 사울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행동했다.

사울이 저지른 두 번째 죄 역시 첫 번째 죄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것이었다. 사울은 아말렉 사람들은 물론 그들이 키우던 짐승들까지도 전멸시키라는 지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사울이 이끄는 군대는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사울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양 떼와 소 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 그리고 다른 좋은 것들을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었다(사무엘상 15:1-9). 사울은 좋은 짐승들을 남겨두었다가 그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 때 죽일 계획이었다고 했다.

사무엘이 찾아오자 사울은 말했다. “나는 주님의 명령대로 다 하였습니다”(새번역). 그러자 사무엘이 물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됩니까?” 그러자 사울은, 백성들이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다가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 싶어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이에 대한 사무엘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사무엘의 답변을 보면 하나님께서 ‘순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드러난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굳어진 마음으로 사리분별을 못하는 것은] 사신(邪神)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와 말씀의 버릇으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사무엘상 15:22-23).

이 말 뒤에 이어진 사울의 고백은 정확한 것이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와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사무엘상 15:24). 하나님께 불순종했기에 사울은 왕의 자리를 박탈당했다(사무엘상 28:17-18).

하나님께서서는 사울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고 사울은 그 말씀에 담긴 내용을 알고 있었다. 사울과 백성이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은 것은 ‘좋은’ 뜻에서 한 일일 수 있다.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 즉 최상품의 가축을 바치고 싶었을 것이다. 좋은 가축을 지금 당장 죽이지 않고 남겨 두었다가 나중에 희생제물로 모두 바치면 어찌되었든 한 마리도 남김없이 진멸하는 셈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아말렉에게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리품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음이 분명하다. [사울의 말대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축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을 ‘자기가 갖겠다고’ 남겨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사람의 생각에 바탕을 둔 그들의 지레짐작을 하나님은 받아들이지 않으셨다. 이 일에서 볼 수 있듯,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해야 한다. 예배가 중요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가장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순종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에 따라 예배를 드려야 한다.

덧붙인 한마디: 신약시대의 제사장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골로새서 1:18) 각각의 그리스도인은 그 몸을 이루는 지체, 즉 신체기관이다(고린도전서 12:12-27). 교회를 구성하는 그리스도인은 모두 형제·자매이고, 구약시대와 달리 제사장 계급이 따로 없다. 교회의 대표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분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계시록 1:6; 5:10).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배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보시는 순종의 원칙은?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 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계시록 22:18, 19).

우리 눈에 작게 보이는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존 지라르두(John L. Girardeau)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문제를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표현했다.

교회의 교리·운영·예배 등 모든 요소에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인증이 필요하다. 바꾸어 말하면, 성경에서 명령하지 않은 내용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지 않았거나 기록된 진술로부터 타당하게 귀결될 수 없는 경우, 무엇이든 금지된다. 미주 1 [52쪽]

권위에 관한 네 가지 원칙

지역교회에서 무엇인가를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으려면 권위와 관련된 네 가지 원칙을 이해해야 한다.

❶ ‘이렇게 행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명령하거나 기록되게 하셨다면 우리는 그 내용대로 순종해야 한다. 침례 받은 사람들에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관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구체적인 명령들에 순종해야 한다는 원칙이 드러난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으면 예수께서 분부, 즉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다(마태복음 28:20상반).

②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금지하셨다면 우리는 그 일을 피해야 한다. ‘산상수훈’에서는 여러 가지 금지 사항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들을 하셨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새번역: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마태복음 6:7상반);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마태복음 6:16상반).

③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렇게 하라’고, 특정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면,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 이것이 원칙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보다 자신의 선택을 앞에 놓을 수 있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택하여 이스라엘 전체의 예배와 관련된 여러 임무를 담당하게 하셨다(민수기 1:50). 하나님이 그러한 선택을 하셨다는 것은, 다른 지파의 그 누구도 성소에서 섬기는 일을 하면 안 되었음을 의미한다.

제사장의 자격에 관한 하나님의 선택이 율법에 분명히 드러나 있었으므로 율법이 효력을 발휘하는 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될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선택하신 사항을 위반하지 않으셨다. 유다 지파 출신인 예수님을 구약 율법 아래서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임명하셨다면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제사장이 될 수 있게 하셨다. 이에 관해 설명하면서 히브리서 기록자는 다음과 같이 썼다.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히브리서 7:12-14).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구체적인 사항으로만 이루어진다. 특정 사안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를 성경에서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것만을 그대로 따라야 함을 의미한다. 특정 영역에서 하

순종의 의미 | 순종의 원칙 | 순종하는 찬송

나눔이 어느 한 가지 방법을 택하셨다면 나머지 방법 모두는 그 영역에서 행할 수 없다.

④ 특정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구체적 선택을 하지 않으신 경우, 우리에게 재량껏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러한 예로서 바울은 특정한 음식을 먹는 문제와 특정한 날을 중히 여기는 문제에 관한 내용을 편지에 썼다(로마서 14:2-6).

지금까지 살펴본 네 가지 원칙은 주(主)의 만찬을 비롯하여 교회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주의 만찬을 예로 들어 보자.

① [명령대로 따르기] 주의 만찬을 먹으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다(고린도전서 11:23-26). 그러므로 그 명령을 따라야 한다.

② [금지하신 일 하지 않기]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고린도전서 10:19-21). 그러므로 그러한 제물을 주의 만찬에서 먹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겹하여 마시면 안 된다.

편집자 주

*우상 숭배 의식을 통해 제물을 바치고 음식을 나누는 자리에 그리스도인이 참여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은 귀신을 섬기지 않는다(고전 10:20).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않는 문제와 관련하여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1세기 당시 고린도처럼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에서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음식을 전혀 먹지 않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다량의 식육이 우상의 신전을 거쳐 유통되는 고린도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온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전 10:25).

③ [하나님의 선택 따르기] 예수께서는 ‘떡(=빵)’과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주의 만찬에 사용하도록 택하셨다(마태복음 26:26-29). 그 두 가지 외에 어떤 음식이나 음료도 말씀하지 않으셨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만찬에 치즈나 고기 등을 함께 사용하면 안 된다.

④ [허용된 재량권 누리기] 주의 만찬에 사용하는 잔의 모양, 잔의 재질, 만찬 참석자들 사이에 잔을 나누는 방법 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잔과 관련하여 이러한 영역들에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

** (39쪽 하단 내용 관련)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들 가운데는 만찬에 사용하는 ‘잔’에 관한 원칙을 다르게 이해하면서 예배 때 한 개의 잔만 고집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잔에 담긴 내용물 자체가 아니라 내용물을 담는 형식에 지나친 관심을 쏟으면서 그것을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는 문제로 본 경우라 하겠다. 미국의 지역교회들 사이에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사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개략적인 실태를 아래에 정리한다.

견해와 교리: 하나의 잔

미국 내 그리스도의 교회 수는 약 13,000여 개로 알려져 있다.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지역교회는 교리적인 면에서 많은 공통점을 유지하면서 지역교회 사이에 큰 문제없이 교제를 나누고 협력한다.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가 동일한 교리적 입장을 취하는 것은 아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교회들 간에도 어느 정도의 입장 차이와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 그리스도의 교회 수로 보면 4분의 1(25%), 구성원 수로 보면 13% 정도가 가르침과 활동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교회들 사이에서 ‘비주류’라 할 수 있는 지역교회들은 다른 교회들과 자신들을 동일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한 교회들은 관련 교회 주소록에도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고 교제를 유지하는 교회들만 수록하고 있으며, 다른 그리스도의 교회들과의 교제는 최소한의 범위에 한정하고 있다.

소수의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단호하고 배타적인 태도로 주장하는 의견은 대략 네 가지인데, (1) 교회 외의 기관 운영이나 교회의 후원을 반대하는 의견(Non-institutional), (2) 주일학교 운영을 반대하는 의견(Non-class), (3) 주의 만찬 시 복수의 잔 사용을 반대하는 의견(One Cup), (4) 전임 전도자나 설교자 고용을 반대하는 의견(Mutual Edification) 등이 그것이다. 어떤 교회들은 그 가운데 한 가지 입장만을, 다른 교회들은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입장을 수용하고 있으므로 각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는 명확하게 그 교회가 어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약 1,000여 개의 교회들이 주일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 그 중 절반 정도는 주의 만찬 시 복수의 잔을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교회들만이 하나의 컵을 사용하며, 이러한 교회들이 미국 30여개 주에 널리 분포해 있지만, 미국 전체 그리스도의 교회 구성원 중 약 1.4%만이 여기에 해당한다.

- 자료 정리: 함동수

순종의 의미 | 순종의 원칙 | 순종하는 찬송

권위의 원천

하늘로부터인가, 사람으로부터인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활동은 하늘로부터 온 것, 아니면 마귀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온 것, 이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고린도후서 11:13-15).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물으셨다.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마태복음 21:25; 마가복음 11:30; 누가복음 20:4).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질문이다. 우리는 신앙생활과 관련된 모든 일에서 그러한 질문을 해야 한다. 교회가 행하는 어떤 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면, 즉 성경에 계시된 내용에 따른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만약 교회가 선택한 어떤 것이 하나님이 이미 특정한 방식을 선택하신 영역에서 사람이 행한 선택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 옷단 귀에 술을 만들라는 명령을 전하라고 지시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옷단 술을 달게 하는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셨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와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민수기 15:39, 40).

위에 인용한 가르침은 ‘...하라’는 내용과 ‘...하지 말라’는 말씀에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대로 ‘행하여야’ 했고, 그들의 마음과 눈이 원하는 쪽으로 ‘행하지 말아야’ 했다.

사람이 가르치고 행하는 것 가운데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올바른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음으로 이끄는 길인 경우가 있다(잠언 14:12).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르치지 않는 사람은 그들 안에 빛이 없다(잠조: 이사야 8:20 공동번역개정판: “그들의 마음에 아직 동이 트지 않았기 때문이다”. 확인: KJV, ASV, NASB, NIV, ESV, NET 등). 사람의 길은 하나님의 길과 다르며(이사야 55:8-9), 사람의 길은 자신에게 있지 않다(예레미야

10:23). 사람의 마음은 거짓되다(예레미야 17:9).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신뢰하는 사람은 “**미련한 자**”이다(잠언 28:26).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기에 이스라엘이 범한 죄는,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데 있었다(사사기 17:6; 21:25). 베드로는 하나님의 길을 벗어난 사람들을 가리켜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그릇된 길로 갔다고 했다(베드로후서 2:15). 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와**의 목전(目前)에서 정직하게”, 즉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기를 바라신다(신명기 13:18).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야 한다고 강하게 권고하셨다.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이 하는 행동을 따르면 안 되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레위기 18:3-4).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하므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레위기 20:23).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가, 마귀에게서 온 것인가?

예수께서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요한복음 8:44).

마귀는 에덴동산에서 하와를 속였다(창세기 3:1-4; 고린도후서 11:3; 디모데전서 2:14). 1세기의 마술사 엘루마는 마귀의 영향으로 바울의 가르침을 방해하려 했다(사도행전 13:8-10). 진리로부터 떠나는 것은 귀신의 영향 때문이다(디모데전서 4:1, 2).

권위가 적용된 예

예수께서는 이 땅에 와서 사역하시는 동안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를 지시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했다. 예수께서 직접 명령하신 내용 몇 가지를 정리해본다.

- “...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마태복음 9:6하반).
- “...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마태복음 17:27).
-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마태복음 21:2).
-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누가복음 5:4하반).
-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누가복음 5:14).

위에 소개한 경우들을 보면,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사람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야만 약속으로 주어진 복을 누릴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었다.

마태복음 28:20

예수께서는 이 땅을 떠나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그 사람들을 가르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마태복음 28:19, 20상반). 교회가 설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던 시절,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믿고 침례받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는 일에 [계속하여] 전념”하였기 때문이다(사도행전 2:42상반 공동번역개정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침례받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배워야 함을 의미했다.

- 예수께서 명령하신 내용을 ‘모두’ 행하여 빠뜨리는 것이 없을 것.
- 예수께서 명령하신 내용보다 더하거나 덜한 것이 ‘하나도 없게’ 할 것.
- 예수께서 명령하신 것을 바꾸는 일 없이 ‘모두’ 행할 것.
- 예수께서 명령하신 내용을 ‘그대로’ 행할 것.

마태복음 15:7-9; 마가복음 7:7-13

마태복음 15:7-9에서 예수께서는 사람의 전통과 명령을 따르는 것을 정죄하셨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범위를 정해 놓으셨다. 이는 우리가 행하는 내용이 예수께서 명령*하신 것들로 제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벗어난 가르침에 바탕을 둔 예배, 즉 사람의 가르침에 바탕을 둔 예배는 필요가 없고 가치가 없기에 적합하지 않다.

편집자 주

*글쓴이는 ‘명령’이라는 말을 넓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예수님의 명령은 직접적일 수도 있고, 분명하게 내포되어 있을 수도 있으며, 명백한 본보기를 통해 전달될 수도 있다.

예수께서는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에 담긴 뜻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마가복음 7:7). 구약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내용은 이스라엘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돌렸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내용을, 읽을 수 있는 사람 앞에 놓인 밀봉된 두루마리처럼, 읽지 못하는 사람 앞에 놓인 책처럼 여겼다(이사야 29:11-12).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들 자신의 율례와 규례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려 했다. 예수께서는 그러한 성격의 예배가 ‘헛된’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예수께서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라고 하셨고,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라고 하셨다(마가복음 7:8, 9하반). 예수께서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라고도 하셨다(마가복음 7:13상반).

순종의 의미 | 순종의 원칙 | 순종하는 찬송

요한복음 4:20-24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길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선지자임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예수께 예배에 관해 물었다. 그녀의 질문은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아닌지에 관한 것도, 어떤 신(神)을 예배해야 옳은가 하는 것도, 예배에 무엇을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것도, 예배가 율법에 따라야 하는가 아닌가 하는 것도 아니었다.

우물가의 여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올바른 예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고, 예배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함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예배에 관한 가르침을 상당히 잘 알고 있었고, 당시의 예배에서 율법이 기준이 되어야 함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녀가 알고 싶었던 것은 어디 가서 예배해야 합당한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께서 하신 답변을 보면 예배 때 기울이는 노력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모두 받으시는 것이 아님이 드러난다. 1세기 당시 사마리아인들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노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 배우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받으실만한 예배가 아니다. 예수께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사마리아인들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시대 경륜에 따른] 정확한 기준을 따르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우물가의 여인에게, 메시아를 통해 주어지는 구원이 유대인들로부터 온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계시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모두 유대인들을 통해 주어졌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맡기셨다(로마서 3:2).**

편집자 **註**

**여기서 글쓴이는 성경이 완결되기 전까지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신약성경 전반에 걸쳐, 유대인 지도자들은 자신들에게 오신 메시아, 자신들에게 ‘먼저’ 주어지는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 거부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인다.

올바른 예배를 드리느냐, 잘못된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은 구원에 영향을 끼친다. 우물가의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수께서는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는지에 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말씀하신 것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에 관해 말씀하고 계셨다. 1세기 당시의 올바른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 바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포함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올바른 예배만을 받으신다. 그리스도 시대의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어야 한다(요한복음 4:23-24). “영으로”[헬라어: 영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에서 비롯된 예배를 드려야 함을 의미한다.*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람의 영이 작동하지 않는 예배는 흰자와 노른자가 없는 달걀 껍질과도 같다. 그러한 예배는, 부부 사이의 관계를 예로 들자면, 다른 일에 마음이 옮겨가 있거나 다른 여성에게 마음이 옮겨가 있는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경우처럼 공허하다.

편집자 주

*헬라어 본문 요 4:24의 ‘영 안에서’에 해당하는 표현에 관사가 없기 때문에 이 때의 ‘영’이 예배자의 영을 가리킨다고 보는 경우가 많지만, 문맥을 고려하여 ‘성령’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예배함을 의미한다. 신약시대의 예배는 구약의 율법에 따라 드리지 않는다.**

편집자 주

**개역한글판 성경의 강한 영향으로 아직도 많은 사람에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찌니라”는 표현이 귀에 익다. 하지만 요 4:24에서 ‘진정으로’라고 번역한 표현에 담긴 뜻이 ‘진심을 다하여’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예배는 진리 안에서, 즉 진리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바에 따라 드려야 한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가르침 중 우리가 보기에 사소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중요하다고 가르쳐주셨다.

요한복음 16:13-14

예수께서는 사도들과 신약시대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모든 진리를 드러내셨다(참조: 에베소서 2:20; 3:3-5).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진리의 말씀이 추가로 계시될 일이 없었다. 추가로 계시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다.

순종의 의미 | 순종의 원칙 | 순종하는 찬송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요한복음 16:13-14).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은 사람들은 사도들이었다. 그것이 분명한 이유는, 위에 인용한 말씀을 하신 때가 예수께서 가까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유월절 식사 때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사도들의 발을 씻으셨는데(요한복음 13:4-5),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열두 제자밖에 없었음이 분명하다(마태복음 26:20; 마가복음 14:17; 누가복음 22:14).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들도 하셨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요한복음 14:25),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요한복음 15:27), “[내가]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요한복음 16:4하반).

로마서 10:1-3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예’ 하고 하나님께 반응하기를, 그리고 가르침에 신중히 따르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멋대로 행동할 자유를 주지 않으신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채 무엇인가를 행한다면, 우리는 모르고 행하는 사람들이 된다. 1세기의 이스라엘이 바로 그렇게 행하고 있었다. 바울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며’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약시대에]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여 구원을 상실했다는 점이 나타난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義)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로마서 10:2-3).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내용에 담긴 명령대로 행하는 데 있다.

고린도후서 11:3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벗어나 그릇된 길로 이끌릴까 하여 두려워했다. 누군가 ‘그릇된 길’로 벗어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염려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머물러야 하는 범위를 정해놓은 기본적인 원칙이 있음을 의미한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말씀하는 “**진실함**”[NASB: 순진함]과 “**깨끗함**”을 간직하려면 예수님만을 주님이자 권위 있는 선생님이로 모시며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남아있어야 한다.

“순진함”(NASB)과 “깨끗함”이라는 두 가지 표현은 참된 가르침에 대한 흠 없고 충실한 헌신을 가리킨다. 이에 대해 바울은 보충적인 설명을 해 주었다. 그가 우려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다른 “예수”나 다른 “영”이나 다른 “복음”에 설득당하여 따라가는 상황이었다(고린도후서 11:4). 뒤에 보면 바울은 “거짓 사도”, “가장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린도후서 11:13).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가르침만을, 다른 영이 아닌 성령만을, 다른 복음이 아닌 고린도 교회가 받았던 바로 그 복음만을 따라야 한다.

갈라디아서 1:7-8

예수님의 가르침에 다른 가르침을 더하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가르쳐야 한다. 복음(εὐαγγέλιον,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에 관한 것이지만, 그 외의 내용도 담고 있다.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전해진 복음은 할례를 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관한 문제(갈라디아서 2:2-5), 유대인이 이방인과 자유롭게 친교를 나누는 문제(갈라디아서 2:11-14)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성경에서는 “복음”에 포함된 여러 가르침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음은 회개의 필요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마태복음 4:17; 마가복음 1:15). 복음에 담긴 메시지에서는 사람이 비밀스럽게 간직하고 있는 “**은밀한 것**”이 심판을 받으리라고 우리에게 알려준다(로마서 2:16).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음에 담긴 원칙들에 합당해야 한다(빌립보서 1:27). 복음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소망(골로새서 1:23), 다양한 도덕적 요구사항(디모데전서 1:8-11) 등이 있다. 복음은 “**썩지 아니할 것**”(=불멸)을 환히 드러낸다(디모데후서 1:10).

순종의 의미 | 순종의 원칙 | 순종하는 찬송

예수께서 가르치신 원칙들을 벗어나서 가르치는 사람은 오류에 빠져 있다.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께서 구원을 가져오기 위해 하신 일에 관해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고, 구원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지에 관해,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관해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다. 복음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임하는 저주 아래 있다(갈라디아서 1:8-9).

골로새서 2:18-23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선생들은 우리를 속여 영원한 나라에서의 상급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붙드는 대신 교만한 지식인들이 시키는 바에 따라 행하게 만들기 때문이다(18, 19절). 우리는 세상의 원칙들에 대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하며, 사람이 정한 규례에 얽매이면 안 된다(20절). 그러한 규례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다(22절). 그 모든 것들은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자의적 숭배**”(공동번역 개정판: “제멋대로의 예배”)로 이끌어왔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행동해야 한다. 우리는 사람의 지혜로 고안해 낸 가르침들을 따르면 안 된다.

디모데후서 3:16-17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라고 했는데, 어린 디모데가 알았던 “**성경**”은 구약성경이었을 것이다(디모데후서 3:15).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구약성경보다 더 많은 것을 의미했다. 윌리엄 헨드릭슨은 15절 말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바울은 여기 15절에서 “**성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16절에서는 “**모든 성경**”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그는 구약성경(15절)과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불릴 수 있는 모든 것(16절) 사이에 분명한 구분선을 긋고자 한다. 후자는 전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주 2 [52쪽]

신약전서에 포함된 기록들은 성경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바울이 쓴 글에 관해 베드로가 설명한 내용도 그러한 취지였다(베드로후서 3:16).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모든 성경, 즉 하나님께서 숨결을 불어넣으신 모든 말씀은 완벽하게 계시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일에 기초가 된다(디모데후서 3:16). 성경과 같은 권위를 지니고 성경처럼 온전하게 제시된 다른 기록은 없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 “**온전하게**”[NASB: “적절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디모데후서 3:17).

디도서 1:10-14

바울은 교회 안에서 입에 올리면 안 되는 그릇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했다(10, 11절). 그러한 지체들은 엄히 꾸짖음으로써 건전한 믿음을 지니게 해야 한다(13절). 참되고, 순수하며, 오염되지 않은 가르침만 전해야 한다.

우리는 신화(神話)나 사람들의 명령에 주의를 기울이면 안 된다. 진리로부터 등을 돌린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으면 안 된다(1:14). 우리는 신앙의 범위를 유지해야 한다.* 하나님만 섬기고 진리만 섬겨야 한다. 예수께서 계시하여 드러내 주신 바에 따라야 한다(요한복음 1:17; 8:31-32; 14:6).

편집자 註 *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범위는 원수까지 포함할 정도로 넓어야 한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 안에 제한되어야 한다.

히브리서 2:10; 12:2

편집자 註 히브리서 2:10 말씀, “그러므로 만물(萬物)이 그를 위(爲)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榮光)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救援)의 창시자(創始者)를 고난(苦難)을 통(通)하여 온전(穩全)하게 하심이 합당(合當)하도다”에서 전반절에 담긴 뜻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을 통하여 존재합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라는 의미이다.

순종의 의미 | 순종의 원칙 | 순종하는 찬송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지닌 믿음의 “창시자”이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야 하는 가르침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시작하셨을 뿐 아니라(히브리서 2:3) 온전하게 완성하기도 하셨다.

요한2서 1:9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요한2서 1:9). 요한2서의 이 말씀에 사용된 헬라어 동사들의 용법을 보면 여기 언급된 행동이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내용을 계속해서 넘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 안에 머무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다. 우리는 신앙의 범위를 유지해야 한다. 정해진 신앙의 범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을 모두 모시고 있다.

계시록 22:18, 19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 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성경을 마무리하는 선언을 보면, 「계시록」의 기록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빼는 사람을 엄하게 징죄하고 있다. 이러한 징죄가 「계시록」에만 적용되는 것일까? 성경에 포함된 66권의 책 가운데 한 권에 어떤 내용을 더하거나 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성경 속 다른 책들에 대해서도 그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계시록」에 대해 적용되는 원칙은 하나님께서 주신 나머지 계시에도 사실 일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그 어떤 것도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

결론

예수께서 가르치신 내용을 벗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지만, 그 가르침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을 모두 모시고 있다. 이는 동그라미를 예로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 모두를 원 안에 적는다고 생각해 보자. 예수께서 특정 분야에 관한 특정 선택을 하여 가르침을 주신 경우, 그 가르침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교회가 행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원 바깥에 적어야 한다. 주의 만찬을 예로 들 수 있다. 원을 하나 그리고, 그 안에 예수께서 택하신 재료를 적어 보자. 예수께서 택하신 두 가지는 “떡(즉 누룩 없는 빵)”과 “포도나무에서 난 것(즉 포도즙)”이다(마태복음 26:26-29). 이제 원의 바깥쪽에 여러 가지 다른 재료를 적어 보자. ‘치즈’, ‘햄’, ‘사과주스’ 등이 바깥쪽에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원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실천해야 하지만, 원 바깥에 있는 모든 것은 피해야 한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이다. 원 바깥에 있는 어떤 것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나쳐” 가고 있다.

미주

¹John L. Girardeau, *Instrumental Music in the Public Worship of the Church* (Havertown, Pa.: New Covenant Publication Society, 1888; reprint, 1983), 3.

²William Hendriksen, *I-II Timothy*, New Testament Commentary (Grand Rapids, Mich.: Baker Book House, 1974), 300.

기초 잡기: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명령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명령이 주어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편집자 주

*예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요 14:26). 예수님의 이 약속을 ‘근거’로 오늘날에도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각 개인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신 문맥을 보면, 초자연적인 과정을 통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된 대상은 기원후 1세기에 성령의 계시를 받아 행하고 가르치며 기록한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

순종의 의미 | 순종의 원칙 | 순종하는 찬송

하나님께서서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알려주겠다고 하셨다.

모세의 율법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아래 있다. 구약시대의 율법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가정교사와 같은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갈라디아서 3:24-25), 구약성경 연구를 통해 신약시대에 적용되는 예배 방법을 찾을 수는 없다. 구약과 신약이라는 두 언약에서 행하는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율법 아래서 예배할 때 악기를 사용했지만 신약시대 예배에 악기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상하게 여길 이유가 없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영원토록 한결같이시지만(히브리서 13:8),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에 요구하신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같지 않았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언약 아래서 모든 민족으로 구성된다.

‘구약성경에 보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리이러하게 행했다’라고 해서 그 행동 방식이 그리스도인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다. 구약시대에 행하던 것을 지금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율법의 나머지 모든 것도 지켜야 마땅할 것이다. 만약 율법의 한 가지 항목이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면 율법의 나머지 항목 모두도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3절에서 이점을 명확히 했다[“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리스도 시대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완전히 계시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되어 있다(참조: 에베소서 3:4-5).

하나님의 메시지가 직접 담긴 책은 성경 외에 없다. 성경책은 신중히 읽고 온전히 따라야 한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이다(베드로후서 1:3).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종교적 행위를 해야 한다고 누군가 요구한다면, 그것을 따르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과 관련하여 신약성경에서 볼 수 없는 무엇인가를 하도록 하는 사람의 태도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 아직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으니 자기가 추가로 알려주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담고 있다.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면서 능력있고 숙련되게 함으로써 선한 일 행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게” 할 수 있다(디모데후서 3:16-17). 하나님이 계시하신 내용에 무엇인가를 더하는 사람은 ‘완전히 갖추어진 것’에 무엇인가를 더하는 사람이다. 교회에서 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 가운데 성경에서 볼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교회는 그러한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교회 단위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고자 할 때, 권위에 관한 네 가지 원칙을 다시 살펴보면 좋을 것이다. (1)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라면 순종해야 한다. (2)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지하신 것이라면 피해야 한다. (3) 하나님께서 특정한 분야에 관해 특정한 선택을 하셨다면 우리의 선택이 제한된다. (4) 하나님이 특정한 분야에 관해 특정한 선택을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 분야에 관해 분별력을 발휘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갖는다.

신약에서 만나는 10가지 명령

옛 언약

출애굽기 20:3-17

1.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가 두지 말라.
2.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3.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 네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네 이웃의 명예를 욕하지 말라.

새 언약

고린도후서 3:3

1.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길 것(고전 8:6; 엡 4:5; 요 17:3).
2. 무상을 멀리할 것(요일 5:21; 제21:8).
3. 맹세하지 말 것(마 5:34).
4. 매 주 첫날에 예배할 것(고전 16:2; 행 20:7).
5.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할 것(엡 6:1-2; 골 3:20).
6. 살인하지 말 것(제 21:8; 요일 3:15).
7. 간음하지 말 것(고전 6:9-10; 히 13:4).
8. 도둑질하지 말 것(엡 4:28; 고전 6:9-10).
9. 거짓말하지 말 것(엡 4:25; 골 3:9).
10. 탐욕을 부리지 말 것(골 3:5; 고전 6:10).

- 십계명은 이스라엘 민족(유대인)에게만 주어졌음.
- 십계명은 이집트 탈출 후에야 주어졌으므로 발생했음.
- 십계명과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어졌음.
- 십계명은 AD 33년 무렵부터는 적용되지 않음.
- 십계명은 '대 이상' 효력이 없음(골 2:14).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 22:37-40).

- 새 언약은 AD 33년 무렵부터 이 땅 모든 사람에게 효력을 발위하게 되었음.

© 2009 WORLD VIDEO BIBLE SCHOOL. Adapted & modified: 2012-04-13, 2021-07-06. Used with permission

무악기 찬송은 순종해야 하는 명령일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개역한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서로에게 말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선율을 만들며]...(에베소서 5:18, 19).

단어의 뜻을 잘 이해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 신약성경은 주로 헬라어(=코이네 그리스어)로 기록되었고 수 세기가 지난 후에 여러 언어로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영어 성경을 읽을 때 영어사전을 사용하는 것은 성경에 사용된 단어의 정의를 연구하는 데 최선의 방법이 되지 못한다.

신약성경에 사용된 그리스어 단어 전부를 완전하게 정의하는 일은, 구약성경의 그리스어 번역인 「70인역」에 사용된 그리스어 단어들을 통해서도, 그리스 고전 문학에 사용된 고대 그리스어를 통해서도, 후대 그리스 문학에 쓰인 그리스어를 통해서도 가능하지 않다. 언어는 유동적이다. 단어가 지니는 의미는 지역이 바뀔에 따라 달라지고 세대가 바뀔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악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신약성경에 사용된 그리스어 단어를 인용하면서 정작 그 단어에 담긴 의미는 신약시대가 아닌 다른 시대에 바탕을 두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예로 헬라어 프살로(ψάλλω)를 들 수 있다. 이 그리스어 단어는, 신약성경이 기록되던 시기 이전에는 악기를 연주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사용하는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 프살로는 ‘노래하다’, ‘선율을 만들다’ 등으로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악기를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이론을 지지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한 목적으로, 유명한 헬라어 어휘사전에 수록된 힘노스(ῥυμος, ‘찬송/찬미’)의 동의어 설명을 인용하면서 악기 사용의 근거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독일에서 출판된 후 영어로 번역되어 널리 사용된 적이 있는 한 어휘사전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나온다.

ψαλμός[프살모스]의 주된 의미에는 악기 반주가 포함된 반면, ὕμνος[힘노스]에 담긴 주된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에 있고, ὠδή[오데]는 반주의 유무에 관계없고 찬양 및 기타 주제에 관한 것 상관없이 노래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단어이다. 그러므로 동일한 노래가 ψαλμός인 동시에 ὕμνος이고 ὠδή일 수 있었다.^{미주 1}

위에 인용한 내용을 바탕으로 악기 사용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은, 테이어(Thayer)가 그림(Grimm)의 어휘사전을 번역하면서 ‘노래’ 관련 유의어를 소개한 목적을 간과하고 있다. 위의 유의어 설명은 그 단어들이 신약성경에서 다르게 사용된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세 단어가 ‘고전 그리스어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비교하여 제시함으로써 각 단어의 의미가 어떠한 방향으로 어느 정도 변화했는지 보여준다.^{미주 2}

헬라어(=코이네 그리스어) 명사 힘노스와 관련하여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그림-테이어 사전 본문 내용을 보면, 신약성경에서 동사 프살로의 의미를, ‘찬송을 노래하다, 하나님을 노래로 찬양하며 기리다’ 등으로 정의한다.^{미주 3} 신약성경에서 명사 프살모스는 ‘경건한 노래, 찬송’ 등으로 정의된다.^{미주 4}

헬라어 동사 프살로는 대부분의 영어 성경 번역본에서 ‘노래하다’라고 번역하며(로마서 15:9; 고린도전서 14:15; 야고보서 5:13), 에베소서 5:19에서는 ‘선율을 만들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명사 프살모스는 ‘시(時)’ 또는 ‘시편’에 해당하는 영어로 번역한다(누가복음 20:42; 24:44; 사도행전 1:20; 13:33; 고린도전서 14:26; 에베소서 5:19; 골로새서 3:16).

에베소서 5장 19절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과 관련하여, 일부 저서에서는 “시(時)”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복수형이 구약의 시편을 가리킨다고 보면서, [신약시대에도] 악기 반주에 맞추어 노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주장이 사실이기 위해서는 프살모스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이 기록되던 시기 코이네 그리스어에서도 악기 사용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고 입증하거나, 기원후 1세기 교회에서 노래할 때 악기를 사용했다고 입증할 때에만 타당한 주장이 될 것이다.

순종의 의미 | 순종의 원칙 | 순종하는 찬송

바울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라는 세 가지 표현을 엄격히 구분하여 별개의 의미로 사용했을 것이라고 짐작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그 세 가지를 것처럼 엄격히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바울이 세 가지 용어(시, 찬송, 신령한 노래)를 특별히 강조하며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세 가지 사이의 음악적 차이나 문맥상의 차이를 구분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미주 5}

고대 그리스어에서 프살로는 원래 ‘(현을) 뜯다’, ‘팅 하고 통기다’ 등을 의미했다. 프살로라는 단어의 의미가 점차적으로 변화했다는 사실은 아래에 인용한 설명에도 분명히 담겨 있다. 인용 내용은 고전 작품 속에서 프살로가 어떤 용법으로 사용되었는지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한다.

3. ψάλλω[프살로]가 처음에는 ‘만지다’의 의미였던 것으로 보임. 그 뒤로 (현을) ‘통기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고, 마침내 (악기를) ‘연주하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음.^{미주 6}

세월이 흘러 신약성경이 기록되던 무렵, 프살로의 용법은 다음과 같았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는 주께 찬양을 드리라는 내용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또 한 차례 주제로 제시된다. 19절에서는 “노래하며 찬송하며[=선율을 만들며]”라는 두 개의 동사를 통해 의미를 강조한다(참조: 시 27:6). 프살론테스(ψάλλοντες)가 이제는 문자 그대로 현악기 연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의 경우 서로 다른 종류의 노랫말을 가리킨다고 보기 어렵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프살모스(ψαλμός)는 그리스도인 각자가 예배 때 부르는 노래로서….

3. 로마서 15장 9절에서는 시편 18편 29절[70인역]의 프살로(ψάλλω)를 독사조(δοξάζω)로 해석하는데, 이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찬양할 수 있음을 확인해주는 성경 말씀이다. 야고보서 5:13에서는 프살로(ψάλλω)가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부르는 찬양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미주 7}

위에 인용한 설명에서 “이제는 문자 그대로 현악기 연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라는 설명에 주목하기 바란다. 신약성경이 기록되던 시대 이전에는 프살로[활용형: 프살론테스]가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신약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는, 악기를 연주한다는 것이 더 이상 프살로의 의미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어휘사전과 주석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일치된 견해는, 신약성경에서 헬라어 프살로가 ‘노래하다’의 의미로 사용된다는 점이다.

비록 그 원래의 의미가 현악기를 타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해도, 여기서 프살로(ψάλλω)는 노래를 불러서 연주하는 것을 의미하며(아울러 고전 14:15; 약 5:13을 참조하라), 그리하여 이 구절에는 악기 반주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는다.^{미주 8}

하딩대학교 대학원의 오래된 학위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인용도 볼 수 있다.

[E. A.] 소포클레스(Sophocles)는 그리스 태생으로 하버드 대학교 그리스어 교수로 38년을 재직했는데… 단언하기를, … [교회사 초기 수 세기] 내내 프살로가 악기 사용과 관련 되거나 악기 사용을 암시하며 사용된 바가 없으며, 프살로는 이 시기를 통하여 항상 ‘(그레고리오) 성가를 부르다, 신앙에 기초한 찬양의 노래를 부르다’ 등을 의미했다.^{미주 9}

피터 오브라이언(Peter T. O’Brien) 역시 1세기 프살로의 용법에 관해 동일하게 이해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ψαλμός[프살모스]가 불가피하게 현악기 반주에 맞추어 부른 노래라는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나[국내 발매 사전으로는 『비전성경사전』 등에서 그러한 설명을 볼 수 있다—편집자], 그러한 의미 제한은 불필요하다.^{미주 10}

보다 최근에 출간된 주석서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나온다.

순종의 의미 | 순종의 원칙 | 순종하는 찬송

‘프살로’는 원래 하프 등을 ‘손으로 통기다’라는 의미였지만, 기원후 1세기 무렵에는 주로 ‘노래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기에 이 단어가 악기 사용을 내포한다고 보아야 할 이유는 없었다.^{미주 11}

결론

신약시대에도 악기 반주에 맞추어 찬송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신약성경이 기록되던 시기 헬라어 단어 프살로에 악기 연주의 의미가 담겼을 것이라고 추측하면서 악기 사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그것은 타당한 견해가 아니다.

미주

¹J. B. Lightfoot, *The Epistles of Saint Paul*, vol. 3, *Saint Paul's Epistles to the Colossians and to Philemon*, rev., 2d ed. (London: Macmillan & Co., 1876), 225; quoted in C. G. Wilke and Wilibald Grimm,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trans. and rev. Joseph H. Thayer (Edinburgh: T. & T. Clark, 1901; reprint, Grand Rapids, Mich.: Baker Book House, 1977), 637.

²Thayer, vii.

³Ibid., 675.

⁴Ibid.

⁵H. M. Best and D. Huttar, “Music, Musical Instruments,” *The Zondervan Pictorial Encyclopedia of the Bible*, ed. Merrill C. Tenney (Grand Rapids, Mich.: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5), 4:316.

⁶Geoffrey W. Bromiley,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ed. Gerard Kittel and Gerhard Friedrich, abr. (Grand Rapids, Mich.: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85), 1225. [TDNT]

⁷Ibid., 1226.

⁸Andrew T. Lincoln, *Ephesians*, Word Biblical Commentary, vol. 42 (Dallas: Word Books, Publisher, 1990), 346. [WBC성경주석 42, 666쪽(도서출판 솔로몬)]

⁹E. A. Sophocles, *Greek Lexicon of the Roman and Byzantine Periods* (from B.C. 146—A.D. 1100) (Boston: Little, Brown, and Co., 1870), 1178; James Elvin Jackson, “Singing in Early Christian Worship from the New Testament Period to 180 A.D.” (Master’s thesis, Harding Graduate School of Bible and Religion, Memphis, Tenn., 1961), 65.

¹⁰Peter T. O’Brien, *Colossians, Philemon*, Word Biblical Commentary, vol. 44 (Waco, Tex.: Word Books, Publishers, 1982), 209. [WBC성경주석 44]

¹¹Kenneth L. Boles, *Galatians & Ephesians*, College Press NIV Commentary (Joplin, Mo.: College Press Publishing Co., 1993), 309.

자주 묻는 질문

신약성경에도 악기가 나오지 않나요?

답변: 신약성경에도 악기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음악과는 관련이 없는 맥락에서 나옵니다. 신약성경의 어느 구절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모임에서 악기를 사용했다는 언급이나 암시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침례자 요한에게 보이던 반응, 그리고 침례자 요한 자신과 관련하여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마태복음 11:16, 17. 문장부호는 이 책 편집자가 추가함. 참조: 누가복음 7:31, 32). 노래하고 춤추는 것과 관련하여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예배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들려주신 탕자의 비유에 보면 작은아들이 돌아오자 음악을 연주했습니다(누가복음 15:25). 이 경우 그 음악이 종교음악인지 세속 음악인지에 관해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으므로, 이 구절을 근거로 예배 때 악기를 사용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신약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 등장하는 “음녀(淫女)”는 “큰 바벨론”이라고 불리며 고대 로마를 상징하는데(계시록 17:1, 2, 5, 9, 15, 18), 그 음녀가 멸망하면서 도시 안의 흥청거리던 분위기도 끝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또 거문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통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수금 타는 자와 음악하는 자와 피리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계시록 18:22상반).

「계시록」은 상징을 많이 사용한 책입니다. 예를 들어 일곱 개의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使者)를 나타내고 일곱 개의 촛대는 일곱 교회를 가리

킵니다(계시록 1:20). 여기서 보듯 신약성경에 거문고, 즉 수금(瑟琴)이 나온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에 악기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시록」에 나타나는 신앙적 상징들은 신약시대의 예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예배를 반영합니다. 그러한 상징으로는 금 촛대(1:20; 4:5. 참조: 출애굽기 25:31), 바다*(4:6. 참조: 열왕기상 7:23), 제단(6:9; 8:3. 참조: 출애굽기 27:1), 금 향로(8:3. 참조: 레위기 10:1), 향(8:3. 참조: 출애굽기 30:34, 35), 언약궤(11:19. 참조: 25:10), 장막/성전(15:5. 참조: 출애굽기 26:1; 열왕기상 6:14) 등이 있습니다.

편집자 주

*성전 예배에서 ‘바다’가 지나는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글 한 편을 소개한다(영문). 글 제목: The “Molten Sea” Revisited. 인터넷 주소: https://brill.com/view/journals/vt/71/2/article-p251_6.xml. Last visited: 2021-05-26

「계시록」 제14장의 경우, 거문고, 즉 수금(瑟琴)을 실제로 연주했다는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울려오는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가 ‘마치’(ὡς, 호스) “거문고 타는 자들이 그 거문고를 타는 것 같더라”고 했습니다(참조: NASB·NIV 등 영어 번역본). 계시록 14장 3절 말씀에서는 연주가 아닌 노래만 언급됩니다. 15장 2절에서도, 승리를 거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문고”를 지니고 있다고 했지만, 그것을 연주했다고는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편집자 주

**때로는 번역자가 문장을 불필요하게 이어놓았기 때문에 본문의 원래 의미가 흐려지기도 한다. 계시록 15장 2절과 3절 말씀을 별개의 문장으로 놓고 원래 주어진 의미를 파악하고자 노력하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참조: NKJV).

「계시록」에서 나팔 소리는 어떤 소리(또는 목소리)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고(1:10; 4:1), 일어날 일을 알리는 데 사용되기도 하며(8:2, 6, 13; 9:14) 바벨론이라는 상징적인 도시가 완전히 멸망했음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기도 합니다(18:22). 지금까지 살펴본 신약성경의 문맥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악기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확인하며 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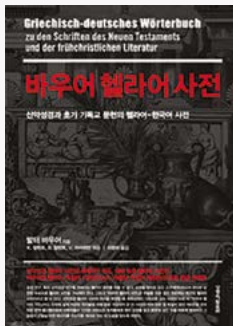
권위 있는 사전은 모두 옳을까?

- 헬라어 ‘프살로’의 경우

현대사회로 오면서 헬라어(=코이네 그리스어) 사전 가운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 여러 종 출판되었고, 그중 일부는 판을 거듭하며 발행되고 있다. 헬라어 사전 편찬사에서 가장 유명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발터 바우어의 저서이다. 그가 편집한 헬라어 사전 초판은 독일에서 1928년에 인쇄되었고, 2021년 현재 제6판까지 나와 있다. 『바우어 헬라어 사전』 제4판은 1952년에 출판되었고, 윌리엄 아른트(William F. Arndt)와 윌버 킵리치(F. Wilbur Gingrich)가 1957년에 영어로 번역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영어판은 1979년과 2000년에 개정판이 나왔다.

성경 원어 어휘사전들은 성경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들이 분명하다. 하지만 때로는 어휘사전 때문에 혼란이 더해져 단어의 의미 파악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유감스러운 사례가, 헬라어 ‘프살로’를 설명해 온 어휘사전의 역사 속에 자리하고 있다.

독일어로 출판된 『바우어 헬라어 사전』 제4판에서는 헬라어 ‘프살로’의 의미를 ‘노래하다’로 정의했다. 독일어 바우어 사전 제4판의 내용을 인용한 저서들을 보면, 영어 번역본의 내용이 원본 독일어판의 내용과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미주1} 독일어 바우어 사전(BAAR) 제6판(1988년)에서 ‘프살로’ 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한글 완역본 1653쪽).



ψάλλω (Aeschyl. 이후, 또 비문. LXX, TestAbr A20 §103,26; TestJob 14:2,4; Jos., ant. 11,67; 12,349; Just.; Mel., P.80,588; Did. 등에도) Fut. ψαλῶ, Aor. Imp. 2.Pl. ψάλατε, 3.Pl. ψαλάτωσαν (LXX) 우리 문헌에는 구약에서 사용하는 방식에 상응하여 **찬송하다, 찬양하다** 찬양을 받는 대상의 여격과 함께 τῷ ὀνόματι σου ψαλῶ 롬 15:9 (시 17:50). ψαλῶ σοι B 6:16 (시 107:4). τῷ κυρίῳ 엡 5:19. 여기에 또 하나의 여격이 들어온다 τῇ καρδίᾳ ὑμῶν 여러분의 마음에서. ψ. τῷ πνεύματι 그리고 대조적으로 ψ. τῷ νοῖ 영적인 상태에서 그리고 깨어 있는 이성으로 찬양하다 고전 14:15. 독립형: 찬양을 올려 퍼지게 하다 약 5:13. * (5) VIII 492-506; X 2, 1287 (S)

아른트와 킁리치가 독일어 바우어 사전을 영어로 번역하여 출판한 초판 내용을 보자. 아래 인용한 내용을 보면 헬라어 ‘프살로’ 항목 설명에서 바우어가 내린 정의에 없던 내용, 즉 ‘악기 반주에 맞추어 찬양한다’는 생각이 첨가된 것을 볼 수 있다(*편집자 주: 이 책에서는 붉은 글씨로 표시함).

... in our [literature], in accordance [with Old Testament] usage, *sing (to the accompaniment of a harp)*, *sing praise* [with dative] of the one for whom the praise is intended.
...^{미주 2}

번역본 초판에서 “수금 반주에 맞추어”라는 설명을 삽입한 것이 문제를 일으키자 영어판 사전 편집자들은 제2판(1979)에서 그 내용을 제외했지만, 제3판(2000)에서 다시 삽입했다. 2021년 현재 시판되고 있는 영어판 바우어 사전(BDAG)의 ‘프살로’ 항목에서 일부를 발췌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in our [literature], in accordance [with Old Testament] usage, to sing songs of praise, *with or without instrumental accompaniment*, *sing, sing praise* [with dative] of the one for whom the praise is intended. ... The original [meaning] of ψάλλω was “pluck”, “play” (a stringed instrument); ... In the LXX [ψάλλω frequently] means “sing”, whether to the accompaniment of an instrument (Ps. 32:2, 97:5 ...) or not, as is usually the case (Ps. 7:18; 9:12; 107:4 ...). This focus on singing continued until ψάλλω in [Modern Greek] means “sing” exclusively; ... ψάλτης [*psaltes*] = singer, chanter [with] no [reference] to instrumental accompaniment. Although the [New Testament] does not voice opposition to instrumental music, in view of Christian resistance to mystery cults, as well as Pharisaic aversion to musical instruments in worship ... it is likely that some such sense as *make melody* is best understood in this [Ephesians passage]. Those who favor “play” ... may be relying too much on the earliest [meaning] of ψάλλω.^{미주 3}

위에 인용한 영어판의 경우와 달리 Bauer-Aland판(또는 BAAR)이라고 불리는 독일어판 바우어 헬라어 사전(개정제6판) ‘프살로’ 항목에는 (이 글 첫 페이지의 스캔 이미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악기 반주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시 한 번 정리하면, 독일어 바우어 사전을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악기 관련 내용이 BDAG에 정당한 사유 없이 첨가되었다.

미 주

¹독일어 바우어 사전 제4판 수록 내용을 독일인 학자가 영어로 번역하여 인용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곳: James D. Bales, *Instrumental Music & New Testament Worship* (Searcy, Ark.: Truth for Today World Mission School, 1973), 151-52.

²Walter Bauer,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rev. William F. Arndt and F. Wilbur Gingrich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7), 899.

³Walter Bauer,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3d ed., rev. and ed. Frederick W. Dank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1096. [BDAG]

오늘날의 순종: 구약을 따를 것인가, 신약을 따를 것인가?*

편집자 주

*육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문제에 관한 논의를 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질문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인 다윗도 악기로 찬양하고 춤으로 찬양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에게 그 질문이 타당한 것인지 함께 검토한다.

신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구약시대의 예배와 분명하게 구별된다. 만약 우리가 모세를 쳐다보며 예배 방법을 물을 수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창시자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킬 것이다(신명기 18:18; 요한복음 5:46; 사도행전 3:22, 23; 히브리서 2:10; 12:2). 구약과 신약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게 되면, 예배 방법을 배우고자 하는 그리스

도인이 구약에서 답을 찾으면 ‘안 되는 이유’를 더 쉽게 알 수 있다. 구약 율법 가운데 어느 하나를 지키려 한다면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한다(갈라디아서 3:24, 25; 5:3). 「히브리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살펴보자. 히브리서에서는 새 언약이 더 뛰어난 언약임을 알려 준다(참조: 히브리서 7:19, 22).

죄를 없애지 못하던 희생제사

구약시대 율법 아래에서는 (「레위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듯) 여러 희생제물을 바쳐야 했다, 하지만 그러한 희생제사는 죄를 없애지 못했다(히브리서 10:4). 진정한 죄 사함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온다(베드로전서 2:24). 우리는 예수께 순종함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히브리서 5:9). 그러한 순종은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받는 과정을 통해서(마가복음 16:15-16; 사도행전 2:38; 로마서 10:10), 그리고 계속해서 빛 가운데 행하는 모습을 통해 드러난다(요한1서 1:7-9).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희생제물은 입술의 열매와 선한 행실이어야 한다(히브리서 13:15-16).

역할을 다한 절기와 안식일

구약시대 율법 아래서 이스라엘은 절기를 지켜야 했다(민수기 28:16-25; 신명기 16:16; 역대하 8:13).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날은 오늘날 보통 ‘주일’이라고 부르는 ‘주의 날’이다(계시록 1:10).** 새 언약 아래 있는 우리는 그 특별한 날에 예수님을 높이며 예배한다. “주의 날”이라는 표현은 초기교회에서 일요일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면서 매 주간의 첫날을 의미했다(사도행전 20:7; 고린도전서 16:2). 초기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매 주간의 첫날에 모여 주의 만찬을 거행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했다.

편집자 주

**오늘날에도 여러 교회에서 이른바 ‘교회력’을 정해 놓고 지킨다. 그러한 방법이 교회 행사 계획과 운영 면에서 조화와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책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구약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새 언약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날’ 외에 다른 절기가 필요한 것인지에 관한 냉철한 성찰이 필요하다.

역할을 다한 절기와 안식일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기를 바라셨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특정 장소에 제한되지 않는다. 예수께서는, 언약의 변화에 따라 예배 방법도 변하여 예배 장소 한 곳으로 제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치셨다(요한복음 4:21-24).

율법에 따라 바치던 십일조

구약시대 율법 하에서 십일조는 선택 사항이 아니었다. 유대인에게는 3년마다 세금으로 바치는 십일조가 정해져 있었다(신명기 14:28, 29; 26:12).*** 그리스도인이 십일조를 바쳐야 한다는 내용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 신약시대 교회의 지체들은 매주 첫날에, 이익을 얻은 바에 따라, 마음에 정한 대로 연보해야 한다(고린도전서 16:2; 고린도후서 9:7).

편집자註

***요세푸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여기서 설명하는 십일조는 “세 번째 십분의 일”에 해당한다(『유대 고대사』 iv.8.240 = 제4권 제8장 22).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던 제사장들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제사장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갔다.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 중 아론의 후손들이었다(출애굽기 28:41; 29:9).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간다(디모데전서 2:5). 지금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남자와 여자의 구별 없이 제사장이다(베드로전서 2:5, 9; 계시록 1:6; 5:10).

새 언약 아래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베드로전서 2:9).



연재 및 휴재 안내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거룩한 백성’이 삶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하여 죽음과 섬김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꾸준히 다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48권에서는 ‘순종’을 주제로 원고를 정리하는 가운데 기사가 넘친 관계로 부득이하게 두 가지 연재물을 휴재하게 되었음을 양해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재한 내용은 그리스도의교회선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thechurch.kr/magazines

떠나보내기와 떠나가기: 죽음 앞에서 위로하고 위로받기

제5권: 성경에 비추어 본 죽음의 문제

제6권: 상실로 인한 괴로움이란 어떤 것인가?

제7권: 단계적으로 밟으며 지나가는 애도의 여정

제8권: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일 때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하기

제9권: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일 때 두려움 마주 대하기

제10권: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일 때 분노 이겨내기

제11권: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일 때 죄책감 없애기

제12권: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일 때 우울감 없애기

제14권, 제46권: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방법

제47권: 위로가 필요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방법

사역자의 영적 생활: 말씀으로 섬기는 사람이 지녀야 하는 마음가짐

제39권: 제1장. 사역자의 영적 생활

제40권: 제2장. 하나님을 향한 영적 태도

제41권: 제3장. 숨어 있는 위험들

제42권: 제4장. 영적 특성에 양분을 공급하는 뿌리(1)

제43권: 제4장. 영적 특성에 양분을 공급하는 뿌리(2)

제44권: 제5장. “그리고 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제45권: (특집) 사역자의 영적 생활 중간 점검

제46권: 제6장. 영적으로 온전한 태도(1)

제47권: 제6장. 영적으로 온전한 태도(2)

제3장 확실한 기초 위에 세우는 삶

여러분이 거실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집은 언덕 위에 예쁘게 자리한 단독주택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실 바닥이 아래로 내려앉기 시작하고 집이 언덕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난데없이 이러한 일을 겪는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무섭고 충격적이며 속상한 일이겠지요! 그런데 몇 주 전에 그런 일이 제가 사는 지역 바닷가에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여러 채의 값비싼 저택이 아무런 경고도 듣지 못한 채 파괴되었습니다. 지반이 무너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건물이 기초보다 튼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기초 위에 삶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인생길에 폭풍우가 밀려와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주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마태복음 7:24-25)

위에 인용한 말씀 뒤에 이어지는 두 절을 계속 읽어 보면 모래(즉 불확실한 기초)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를 알려주십니다.

멋진 건축물처럼 삶을 긍정적으로 세워나가는 데 필요한 확실한 기초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확실한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린도전서 3:11).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하는 이유가 성경에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아래에 정리해 봅니다.

1.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유일한 구주이심(마태복음 1:21; 사도행전 4:11-12).

2.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음(로마서 5:6-8; 계시록 1:5).
3.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심(디모데전서 2:5).
4.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음(로마서 8:1).
5.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정하시는 “보배로운 산 돌[=살아 있는 돌]”이시기에 우리는 그 위에 안전하게 삶을 세울 수 있음(베드로전서 2:1-8).
6.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마태복음 28:18-20).
7.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우신 분이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임(마태복음 16:13-19; 골로새서 1:18).
8. 그리스도는 알파며 오메가, 즉 처음이며 마지막이심(계시록 21:6. 참조: 계 1:8).
9. 그리스도는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임(요한복음 12:48; 로마서 14:10; 고린도후서 5:10).
10.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를 따라야 함(마태복음 16:24).

미국 예일 대학교에 있는 ‘하크니스 탑’은 절묘하게 우아하고 아름다운 건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건축물 하단부의 돌 하나는 건물의 어떤 부분과도 다릅니다. 돌 위에 새겨놓은 내용을 보면, 그 돌이 하크니스 탑이 서 있는 암반의 일부이며, 그곳에 그 돌을 놓은 목적은 보이지 않는 기초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증언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요한복음 4:24; 히브리서 11:1), 긍정적인 삶을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기초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영원히 지속되지 못합니다.

추가 연구 및 토론 안내

관련된 성경 말씀

아래의 성경 구절들이 ‘확실한 기초 위에 세우는 삶’이라는 주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하십시오.

1. 시편 127:1.
2. 히브리서 3:3-4; 11:10.
3. 에베소서 2:22; 골로새서 2:7; 로마서 15:20.

맞으면 T, 틀리면 F

1. T F: 건물은 기초보다 튼튼하지 못하다.
2. T F: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위에 자신들의 삶을 세우려 애쓴다.
3. T F: 그리스도는 유일하게 ‘확실한’ 기초이다.

빈칸 채우기(한 칸에 단어 하나)

1. “우리는 확실한 _____ 위에 _____을 세워야합니다. 그래야만 _____에 _____가 밀려와도 _____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그 확실한 _____ 기초가 바로 _____이십니다.”
3. “믿음이라는 기초 외에는 그 _____영원히 _____되지 못합니다.”

생각하고 토론하기

1. 올바른 기초 위에 삶을 세워야 하는 이유는?
2. 사람들이 잘못 선택하는 기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3. 그리스도를 ‘확실한’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4. 이번 장에서 배우는 내용을 당신의 삶에 적용하기 위한 계획은?

나의 질문 정리하기(여기에 적어 놓습니다)

- 1.
- 2.
- 3.

긍정적 행동의 증거

(안내) 이 과정을 진행하며 아래의 일곱 가지 항목을 계속 채워 넣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삶을 가꾸는 데 꼭 필요한 활동입니다.

1. 이번 주에 나에게 가장 크게 힘이 된 생각

2. 나에게서 좋아진 점

3. 내가 특별히 감사드리는 일

4. 이번 주에 내가 누군가를 도운 방법

5. 내가 괜찮은 사람인 이유

6. 한 줄 기도

7.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가능할 것 같은 일

글쓴이: J. J. 터너

Turner, J. J. *Building a Positive Life*. pp. 14-17.

Translated with the permission of J. C. Choate Publications.

복종하며 순종하라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딤후 3:1).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히 13:17).

성경에서는 복종이라는 말과 순종이라는 말을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말에는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기쁘게 따른다는 의미가 있고, 복종이라는 말에는 자신의 의견이나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반드시 따라야만 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순종하기를 원하시지만 복종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삼상 15:22).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이고 이는 다른 어떤 인간적인 열심과 정성을 쏟는 것보다 더 낫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기억하고 그대로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 있는 믿음을 실제로 나타내어 보이는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순종은 믿음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롬 16:26).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히 11:31).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을 하라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기쁘게 순종하기가 어렵다면 복종하여 내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종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믿음의 실천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엡 5:21).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심은 모든 것에 최상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시간이 더해 갈수록 힘들게 복종하는 단계에서 기쁘게 순종하는 경지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순종으로 산다는 말과 같습니다.

야고보서 2장의 말씀에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17).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22).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24).” 이 말씀들의 ‘행함’을 모두 ‘순종’으로 고쳐 읽으면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순종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고, 순종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를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동행하는 것이 채찍 맞으며 억지로 끌려가는 삶보다 얼마나 더 아름다운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쁘게 순종함으로 자유로운 자녀의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삽시다.

글쓴이: 곽해규(경주 그리스도의 교회)

체크포인트: 은혜의 범위

아우구스티누스(영어: 어거스틴)는 『고백록』 VIII.30 끝부분에서, 자기가 아내라든가 세상의 희망을 추구하지 않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철저히 개종시키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인터넷 검색: confessions book viii). 고백의 형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독자를 설득하는 그의 글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이에게 큰 감명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믿어진 은혜’에 대해 간증하거나 ‘믿음을 주십사’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감히 짐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려는 마음가짐을 보면 고결한 겸손마저 느껴지는 듯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합니다. 교회에 더해지는 절차에 관한 말씀, 우리의 믿음에 관한 말씀 등을 묵상하면서 그 큰 은혜의 선물에 참여할 수 있음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믿고 순종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 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3:3-8)

…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에베소서 2:4-10 사뻏).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은혜에 참여할 뿐입니다.



새 노래

순종이 제사보다

(사무엘의 노래)

순종이 제사보다 낮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 삼상15:22

곡 전상길

순종이 제사보다 낮 - 고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나 내*생 각보다 말씀 따라 살아가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루어지리 그대로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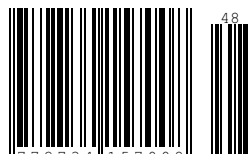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루어지리 그대로되리

* 1.생각 2.유익 3.명예 4.욕심

『그리스도의 교회』 제48권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순종’을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기사 내용에 어울리는 노래를 만들어주시는 전상길 형제님께 감사드립니다. <신령한 노래들> 홈페이지: spiritualsongs.kr

“BE HOLY FOR JOY AND PEACE.”

‘거룩한 삶에 깃드는 기쁨과 평강’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랍니다.



9 772734 157008
ISSN 2734-1577

48